

고려가요 「안동자청(安東紫青)」의 문학적 성격

임 주 탁*

1. 서 론

고려가요 「안동자청(安東紫青)」은 작가와 창작 연대가 밝혀져 있지 않은 노래로서 조선 시대 음악서에도 노랫말이 전하지 않는 작품이다. 다행히도 작품의 개요를 간단하게 옮겨 놓은 『고려사(高麗史)』의 기록, 한시로 옮겨 놓은 민사평(閔思平)의 「소악부(小樂府)」, 『세종실록(世宗實錄)』의 관련 기사, 이유원(李裕元)의 「해동악부(海東樂府)」 등이 있어 작품의 내용을 어느 정도 짐작할 수는 있다.

자료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안동자청」은 노랫말이 전하지 않는 여느 노래와 마찬가지로 고려가요에 대한 기왕의 연구에서 크게 주목받지는 못하였다. 그렇다고 작품의 문학적 성격을 둘러싼 논쟁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고려사』와 『세종실록』의 관련 기록만 알려졌을 때 대부분의 연구자들은 고려가요 「안동자청」이 '아녀자의 정절(貞節)'을 권장하는 '민요적 성격'을 떠는 노래라는 데 이견을 보이지 않았다. 그러나 민사평의 「소악부」의 존재가 알려지면서 그 주제적

* 박사과정 수료

성격에 대하여 전혀 다른 견해가 제시되기도 한 것이다.

이우성(李佑成)은 『급암선생시집(及菴先生詩集)』에 실린 「소악부」 6장의 전반적인 양상을 소개하는 자리에서 그 제5장은 고려가요 「안동자청」을 7언 4구의 한시로 옮겨 놓은 것으로서, 「수총각 수처녀의 사랑」을 노래한 작품으로 해석하였다. 이러한 해석의 연장선상에서 고려가요 「안동자청」은 『고려사』의 기록이나 『세종실록』의 관련 기사에 나타난 것과는 달리 그 '취의(趣意)'가 '남녀상열지사(男女相悅)'에 있다는 주장을 내세운 바 있다. 원래는 '남녀상열'의 주제적 성격을 띤 노래였는데 이러한 성격이 민사평의 「소악부」에는 그대로 수용되었음에 비하여, 『고려사』나 『세종실록』에는 조선시대 유학자들의 윤리도덕적(倫理道德的) 의식(意識)에 따라 '정절자수(貞節自守)'의 '취의(趣意)'로 왜곡·수용되었다는 것이다.¹⁾ 이러한 견해는 최미정(崔美汀)에 의해 부정되기도 하였으나²⁾ 박혜숙(朴惠淑)에 의해 새로이 지지를 받기도 하였으며³⁾ 최근에는 일반적인 견해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형편이다.⁴⁾

아녀자의 덕행을 노래한 것인가, 아니면 남녀간의 사랑을 노래한 것인가. 이 문제는 「안동자청」의 문학적 성격을 규명하는 데에 있어 핵심적인 자리에 놓일 뿐 아니라, 고려가요 전반의 문학적 성격을 규명하는 데 있어서도 중요한 단서가 된다. 만일 이우성·박혜숙의 견해대로 민사평이 한시화(漢詩化)한 것이 원 노래의 취의에 부합하는 것이고 『고려사』의 편찬자들이나 『세종실록』의 관습도 감의 관료들은 그 취의를 왜곡·수용한 것이라 한다면, 『고려사』나 『조선왕조실록』에 기대어 고려가요의 성격을 논의한 기왕의 논의들은 전면적으로 재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그만큼 이우성·박혜숙의 주장은 심각한 문제를 제기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일반적인 견해인 듯이 받아들여지고 있는 것이다.

-
- 1) 李佑成, 「高麗末期의 小樂府」, 『漢文學研究』第1輯, 韓國漢文學研究會, 1976, 8, 7~18면.
 - 2) 崔美汀, 「高麗歌謡와 譯解樂府」, 『雨田辛鑄烈先生古稀紀念論叢』, 서울: 창작과비평사, 1983, 597면.
 - 3) 朴惠淑, 「高麗末 小樂府의 樣式的 特性과 形成經緯」, 『韓國漢文學研究』第14輯, 韓國漢文學研究會, 1991, 55면.
 - 4) 조동일, 『한국문학통사』 제2권, 서울: 知識產業社, 1983, 160면; 최용수, 『고려가요연구』, 서울: 계명문화사, 1993, 285면.

그런데 한 가지 의문은 조선 초기에 여러 차례에 걸쳐 ‘남녀상열’의 노래 또는 ‘음사(淫辭)’의 노래의 폐지 문제를 둘러싼 논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안동자청」은 「원홍곡(元興曲)」과 함께 다시 관현(管絃)에 얹어 불러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었으며 또 이 주장은 왜 아무런 이견이나 반론 없이 그대로 받아들여졌는가 하는 점이다.

『고려사』의 편찬이 태조(太祖)의 명에 의해 시작되고 문종(文宗) 원년(1451)에 이르러서야 완성된 점을 감안할 때 「세종실록」의 기사와 「고려사」의 기록은 동일한 자료 정보를 바탕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⁵⁾ 그리고 관습도감에서 세종(世宗)에게 계(啓)를 올리면서 “두 노래(「원홍곡」과 「안동자청」, 필자 주)는 비록 「악부(樂府)」에 실려 있습니다만 버려두고 쓰지 않은 지 오래되었습니다.”라고 한 데서 그 동일한 자료 정보가 다름 아닌 「악부(樂府)」였음을 알 수 있다.⁶⁾ 그렇다면 「악부(樂府)」에 실려 있던 「안동자청」은 원 노래의 모습을 거의 유지하고 있었을 것이며 그것은 적어도 ‘음사(淫辭)’에 가까운 ‘남녀상열’의 노래로 이해될 수 없는 것이었다고 할 수 있다. 만일 ‘남녀상열’의 노래로 이해될 수 있는 것이었다면 굳이 ‘악가(樂歌)’에 다시 쓸 것을 요청하지는 않았을 것이다.⁷⁾ 따라서 「안동자청」이 ‘아녀자의 덕행(德行)’을 권장하는 노래가 아니라 ‘남녀상열’의 노래였다는 주장은 재론의 여지가 있는 것이다.

또 하나의 의문은 고려가요 「안동자청」이 과연 민요적 성격을 띤 노래인가, 그렇다면 그 민요적 성격이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가 하는 점이다. 기왕의 연구에서는 이 문제에 대하여 진지하게 논의한 예를 찾아 볼 수 없었다. 이는 「안동자청」이 민요적 성격을 띠다는 점에 대하여 모든 연구자들이 암묵적으로 동의하고 있음을 의미하며, 이러한 암묵적인 동의의 기저에는 고려가요가 당대 민요의 영향으로 성립되었다는 관점이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고려 후기의 「소악부」가 ‘민간가요’를 한시화(漢詩化)한 것이고,⁸⁾ 「안동자청」의 주인

5) 실제로 고려사의 편찬 작업은 세종대에 가장 활발하게 진행된 것으로 보인다.

6) 여기서 「악부(樂府)」란 시체(詩體)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궁정 음악을 담당하는 관청에서 편찬되거나 전승되어 온 음악 관련 기록을 가리키는 것이다.

7) 여기서 악가(樂歌)는 당시 연행되던 궁정 음악을 가리킨다.

8) 여기서 ‘민간가요’라 용어는 부적절한 것이나 기존 연구에서 흔히 써 온 것이기 때문에 우

공이 '아녀자[婦人]'로 설정되어 있고, 『세종실록』에서 '아녀자가 지은 것'이라고 한 점 등은 이러한 동의에 주요한 근거로 제시될 수 있었다. 여기에 「안동자청」이 '솟총각, 솟처녀의 사랑 노래'라는 견해가 제시되면서 그 민요적 성격은 한층 더 부각되었던 것이다.

그런데 「안동자청」에 대한 「고려사」나 『세종실록』의 기록이 조선시대 유학자들에 의해 왜곡된 정보를 담고 있다는 것이 사실이라면 적어도 이들 기록이 담고 있는 정보는 신뢰할 수 없게 되며, 따라서 그 민요적 성격은 재론되어야 할 것이다. 사실 우리는 고려가요의 장르적 성격을 논의하는 자리에서 '민요' 또는 '민요적'이라는 말을 흔하게 사용하면서도 이런 술어들이 내포하는 의미를 진지하게 따져보지는 않았다. 어떤 경우에는 '구비전승적(口碑傳承的)'이라는 말과 동일하게 쓰기도 하고 어떤 경우에는 '민중적(民衆的)'이라는 말과 동일하게 쓰기도 하였다. 그러나 '민요적'이라는 말은 적어도 이 두 가지 특성을 모두 갖추었을 때 불일 수 있는 말이다.⁹⁾ 그렇다면 고려가요 「안동자청」이 민요적 성격을 띤 노래라는 것은 이 두 가지 특성을 모두 갖추고 있는 노래라는 말일 것이다.

고려가요 「안동자청」은 과연 당대 민중들에 의해 창작되고 향유된 노래였을까. 고려 후기 「소악부」의 소재가 된 '별곡(別曲)'라는 것이 과연 민중들 자신의 생활 정서와 사상을 담은 노래였을까. 이러한 의문들은 「안동자청」이 민요적 성격을 띤 노래라고 판단하기 이전에 반드시 먼저 해결되어야 할 과제임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검증 작업은 아직껏 시도된 적이 없다. 그러나 이러한 작업이 활발하게 시도될 때 「안동자청」뿐 아니라 고려가요의 전반적인 실상과 성격이 좀더 분명하게 밝혀질 것이다.

지금까지의 논의에서와 같이 민사평의 「소악부」 제5장이 고려가요 「안동자

선 그대로 쓰기로 하고 본론에서는 다시 쓰지 않을 것이다. 이제현의 「소악부」 천편과 민사평의 「소악부」는 모두 '별곡'을 소재로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이제현의 「소악부」 후편만 당시의 '민요'를 소재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9) 張德順·趙東一·徐大錫·曹喜雄, 「口碑文學概說」, 서울: 一潮閣, 1971, 75~76면에 서는 '민요'를 특징을 크게 세 가지로 정리한 바 있다. 첫째, 노래로 구비전승이다. 둘째, 비전문적인 민중의 노래이다. 셋째, 생활상의 필요성에서 창자가 스스로 부르고 즐기는 노래이다.

청」을 소재로 한 것이라는 것을 사실로 받아들인다 하더라도, 이 사실에서 고려가요 「안동자청」이 '솟총각 솟처녀의 사랑 노래'라든가 '민요적 성격을 띤 노래'라는 결론을 바로 이끌어낼 수는 없을 것이다. 이제현의 「소악부」, 전편(9수)이나 민사평의 「소악부」(6장)는 이미 궁정이나 상층 관료사회의 가요로 향유되고 있던 우리 말 노래인 '별곡(別曲)'을 소재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를 근거로 고려가요 「안동자청」의 기원이 '민요'에 있고 그것이 '민요적 성격'을 띤다고 단정할 수는 없는 것이다. 아무리 양보한다 하더라도 「안동자청」은 '민중의 생활 정서와 사상을 담아 민중들 사이에서 향유되는 민요'의 성격을 띤 노래라고 할 수는 없을 것이다.

고려가요 「안동자청」과 관련하여 지금까지 알려진 자료들은 선행 연구에서 여러 차례 검토된 바 있다. 그러나 이들 자료가 갖고 있는 정보가 충분히 파악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이 있다. 고려가요 「안동자청」의 핵심 주제가 '정절자수(貞節自守)'이나 '남녀상열(男女相悅)'이나, 민요이나 아니나 하는 문제는 결국 이들 자료들의 면밀한 분석과 검토가 이루어질 때 해결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이 글은 고려가요 「안동자청」에 관련된 자료들을 총체적으로 분석·검토하여 그 주제적 성격과 장르적 성격을 규명하는 데에 그 주된 목적이 있다.

2. 『고려사』의 기록과 『세종실록』의 기사

「고려사」의 고려가요에 대한 기록은 고려가요의 전반적인 존재 양상을 종합적으로 보여주는 최초의 기록이다. 이와 거의 비슷한 시기에 기록된 『세종실록』의 기사는 「고려사」의 기록 못지 않게 고려가요에 대한 가장 확실한 정보를 담고 있는 기록이다. 「고려사」나 「조선왕조실록」이 고려의 역사를 많은 부분 왜곡한 것이 사실이지만 왜곡이 노래의 영역에까지 미쳤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이 있다. 다음의 두 자료는 고려가요 「안동자청」에 대한 가장 구체적이고 풍부한 정보를 제공해 주는 것이다.

- ① 아녀자는 자기 몸으로써 한 사람을 섬기는데 한 번 제 몸을 잃으면 사람들로부터 천하게 여겨지고 미움을 사게 되므로 이 노래를 지었다. 실의 붉고 푸르고

파랗고 하얀 것으로써 반복(反覆) 비유함으로써 취사(取捨)의 결점에 이르게 한 것이다.¹⁰⁾(밀줄은 필자)

② 관습도감(慣習都監)에서 계(啓)를 올렸다. 「원홍곡(元興曲)」과 「안동자청조(安東紫青調)」를 악가(樂歌)에 다시 쓸 것을 아뢸니다. 「원홍(元興)」은 동북면(東北面) 화녕속군(和寧屬郡)으로 큰 바닷가에 있는데 군의 사람이 배를 타고 장사를 하러 나갔다가 돌아오자 그 아내가 마중을 나가서는 기뻐하며 부른 것입니다. 「자청조(紫青調)」 또한 아녀자가 지은 것으로 아녀자는 자기 몸으로써 한 사람을 섭기는데 한 번 제 몸을 잃으면 사람들로부터 천하게 여겨지고 미움을 사게 되므로 실의 붉고 푸르고 파랗고 하얀 것으로써 반복(反覆) 비유한 것입니다. 두 노래는 비록 「악부(樂府)」에 실려 있습니다만 벼려두고 쓰지 않은지 오래되었습니다. 지금 그 노랫말을 보건대 「자청조」는 아녀자가 정절을 스스로 지켜 다른 사람의 더럽히는 바가 되지 않았다는 것이고, 「원홍곡」은 자아비의 돌아음을 보고 기뻐서 노래한 것으로 「거사련(居士戀)」과 서로 짹이 될 만합니다. 모두 풍교(風敎)에 보탬이 될 만하므로 관현(管絃)에 없어야 합니다. 비루하다고 여겨 썩혀 두지 않으셔야 할 줄 압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였다.¹¹⁾(밀줄은 필자)

①은 「고려사」의 기록이고, ②는 「세종실록」의 기사이다. 밀줄친 부분을 제외하면 이 두 자료는 고려가요 「안동자청」에 대하여 동일한 정보를 담고 있다. 즉, 고려가요 「안동자청」이 아녀자의 '정절(貞節)'을 핵심 주제로 하고 있으며, 하얀 실이 여러 가지 색깔로 물드는 현상으로써 아녀자가 취하는 여러 가지 행위나 태도를 비유한 노래라는 것이다.

이처럼 두 자료가 「안동자청」에 대하여 거의 동일한 정보를 담게 된 것은 ①이 ②를 참조하였거나 ②가 ①을 참조한 데에 기인하는 것이 아니라 두 자료가

10) “婦人 以身事人 一失其身 人所賤惡 故作此歌 以絲之紅綠青白 反覆比之 以致取舍之決焉,”『高麗史』第七十一 志 第二十五 樂 二 俗樂, 「대동운부군옥(大東韻府羣玉)」과 「신증동국여지승람(新增東國輿地勝覽)」의 기록은 이 기록을 그대로 옮긴 것이다.

11) “慣習都監啓 元興曲及安東紫青調 諸於樂歌復用 元興 在東北面和寧屬郡 濱于大海 郡人隨海船行商而還 其妻迎見 悅而歌之 紫青調 亦婦人所作 言婦人以身事人 一失其身 人所賤惡 故以絲之紅綠青白 反覆贊之 二曲 雖皆載諸樂府 然廢而不用久矣 今見其詞 紫青調 婦人有貞節自守 不爲人所汚 元興曲 見夫之還 喜而歌之 正與居士戀相爲表裏 皆足以有補於風敎 誠宜被之管絃 傳之勿壞 從之,”『世宗實錄』卷五十四十三年 辛亥 十月.

기대고 있는 제3의 자료 정보가 동일한 데에 기인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고려사』의 편찬 작업이 조선 태조의 명에 따라 시작되었고 세종대에 정인지(鄭麟趾) 등이 가담하면서 가장 활발하게 진행되어 문종 원년(1451)에 이르러 완성된 점을 감안할 때에도 ①과 ②는 동일한 자료 정보에 근거한 기록이라 할 수 있다. ②는 그 자료가 다름 아니라 당대에까지 전해진 『악부(樂府)』였음을 말해 준다.

②는 또한 세종 당대에 고려시대의 궁정 노래가 비판적으로 수용된 사정을 시사하는데, 『악부(樂府)』에는 실려 있으면서도 버려 두고 쓰지 않은 지 오래되었다는 것은 세종대 이전에는 「원홍곡」과 「안동자청」이 폐기의 대상으로 인식되지 않았고 계승의 대상으로 인식되지도 않았다는 뜻으로 이해할 수 있다. 고려시대에는 궁정의 노래로 널리 불린 것이지만, 조선시대에는 세종대에 이르러 서야 비로소 계승할 만한 가치가 있는 노래로 인식되었고 마침내는 정제된 악곡에 얹혀 다시금 불리게 되었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관습도감의 관료들에 의하여 고려가요 「안동자청」이 계승할 만한 가치가 있는 노래로 인식될 수 있었던 직접적인 판단의 근거는 다름 아닌 『악부(樂府)』에 실려 있는 고려가요 「안동자청」과 그 관련 기록이었음을 알 수 있다. 고려시대의 음악과 노래에 종합 기록물로서의 『악부』가 세종대에도 전해지고 있었으며, 관습도감에서는 이 『악부』에 실려 있는 노랫말과 그 관련 자료를 근거로 「안동자청」은 계승할 만한 가치가 있는 노래라고 판단하였던 것이다. 물론 우리 말 노래로서의 「안동자청」의 온전한 모습은 쉽게 짐작되지 않지만, 이 기록이야말로 고려가요 「안동자청」에 대한 가장 정확한 정보를 담고 있었음은 분명한 것이다.¹²⁾ 그렇다면 이러한 정보를 관리하는 관습도감에서 「안동자청」에 대한 정보를 곡해하거나 의도적으로 왜곡하여 수용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이다. 더욱이 고려시대의 노래에 대한 대대적인 개찬(改撰) 작업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던 시기에 「음사(淫辭)」에 가까운 「남녀상열」의 노래를 굳이 「정절(貞節)」을 권장하는 노래로 재해석하여 다시 「악가(樂歌)」에 얹어 부를 것을 주장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도 납득하기 어려운 일

12) 물론 이 『악부』에 실려 있는 「안동자청」이 국어로 표기되어 있지는 않았을 것이다. 그러나 여러 편의 고려가요가 『악학궤범(樂學軌範)』에 국어로 표기되어 실려 있다는 점은 『악부』에 실려 있는 노래를 국어로 표기하는 일이 크게 어려운 일이 아니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이다. 관습도감의 견해에 대하여 실제로 아무런 반론도 제기되지 않았다는 점도 왜곡·수용의 개연성을 약화시킨다.¹³⁾

이 두 자료는 고려가요 「안동자청」의 작자 문제와 형태 문제에 대하여도 일정한 정보를 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①에서는 노래의 주제와 표현에 대하여만 언급하고 있음에 비하여 ②에서는 '아녀자가 지은 것'이라는 설명을 보태고 있다. 이 진술을 그대로 받아들인다면 고려가요 「안동자청」은 민요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비록 궁정의 노래로 편입되면서 변개된 부분이 없지 않다 하더라도 그것은 본질적으로 민요적인 성격을 띤 노래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한 가지 의심스러운 점은 「고려사」의 기록에는 작가가 밝혀져 있지 않는 노래일 경우 대부분 작품 내에 설정되어 있는 주인공을 작가로 밝히거나 또 노래의 연원이나 창작 경위를 아울러 밝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동자청」에 대하여는 왜 이와 관련한 설명이 전혀 없는가 하는 점이다. 여기서 ①, ②가 기대고 있는 「악부(樂府)」에 실린 「안동자청」에는 그 작가가 구체적으로 밝혀져 있지 않았을 가능성을 생각해 볼 수 있다. 그렇다고 이런 생각이 ②가 제3의 자료 정보를 왜곡하였다는 논리로 비약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고려사」를 편찬한 관료들과 동일한 관점에 서게 되면 제3의 자료에는 작가에 대한 정보가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더라도 작품 내에 설정된 주인공을 작가로 파악할 수는 있기 때문

13) 그밖에도 다음과 같은 사실 또한 왜곡·수용의 개연성을 약화시킨다. 첫째, 고려사 열전에는 민사평의 문집 『금암집(及菴集)』이 세상에 전한다고 기록하고 있다(『高麗史』一百八 列傳 卷第二十一 閔宗儒 頃思平 抑靄). 둘째, 고려사 악지(樂志) 속악(俗樂)에는 '사리부재(詞俚不載)'의 원칙에 따라 우리 말 노래의 노랫말은 실리지 않고 그 대신에 몇몇 노래의 간단한 해설 뒤에 이제현의 「소악부」에 실린 역해시(譚解詩)가 덧붙여져 있다. 이 두 가지 사실은 「고려사」의 편찬자에 관여한 관료들이나 관습도감의 관료들이 이제현의 「소악부」뿐 아니라 이에 대한 화답으로 저어진 민사평의 「소악부」도 읽고 참조하였을 것으로 짐작된다. 만일 「안동자청」이, 이우성·박혜숙의 견해대로, '남녀상열'의 노래로 인식될 수 있는 것이었다면 관습도감에서 굳이 당시 궁정 노래로 되살릴 것을 주장하지도 않았을 것이며, 설령 관습도감의 관료들에 의하여 왜곡 인식되어 이러한 주장이 제기되었다 하더라도 당연히 그에 대한 반론이 제기되었을 것이다.(여기서 '역해시'란 용어는 부적절한 면이 없지 않으나 '고려가요를 소재로 지은 한시'라고 하면 술어 자체가 너무 길 뿐 아니라 이 술어 또한 정확한 표현은 아니기 때문에 일시 방편으로 쓴 것이다.)

이다. 따라서 ②의 “아녀자가 지은 것”이라는 진술에서 고려가요 「안동자청」이 민요라는 주장을 단선적으로 이끌어내기는 어려운 것이다. 다만 고려가요 「안동자청」의 작품 내적 주인공이 아녀자로 설정되어 있다는 것만은 분명한 사실로 받아들일 수 있을 것이다.

한편, ①, ②에서 “실의 붉고 푸르고 파랗고 하얀 것으로써 반복(反覆) 비유하다.”는 진술은 고려가요 「안동자청」의 형태에 대하여 일정한 정보를 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지금까지 「고려사」나 「세종실록」의 번역자들은 한결같이 이들 자료에 공통된 구절 특히 “反覆比之”를 “되풀이 비유하다” 정도로 풀이하여 왔으며, 문학 연구가들 또한 한결같이 이러한 번역을 그대로 수용하여 왔다. 그러나 “되풀이 비유하다”는 것이 각각의 문맥에서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 명징하게 파악되지 않는다. 그 목적이나 대상이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反覆’이 ‘반복(反復)’의 의미로 이해되면서 “反覆比之”는 고려가요 「안동자청」이 동일한 형식이 반복되는 민요적 형태의 노래였으리라는 추정을 해 볼 수 있게 하였다. 빨간실, 초록실, 파란실, 하얀실의 나열은 이들 실이 각각 어떤 대상을 비유한 것으로 파악될 수 있고 그에 따라 몇 개의 연이 반복되는 형식이었으리라는 짐작을 해 볼 수 있게 하였다.

그런데 ①, ②의 ‘실’은 그 자체로 노래의 주인공인 아녀자를 비유한 것이고, 여러 가지 색깔은 본디 하얀색의 실에 물들 수 있는 여러 가지 행태를 비유한 것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아녀자는 본디 하얀색의 실과 같이 본연의 색깔을 유지하여야 할 것인데, 빨강·초록·파랑 등의 색깔로 물든다는 것은 곧 ‘실절(失節)’의 이런저런 행위를 비유한 것으로 이해되어야 할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반복(翻覆)’은 ‘번복(翻覆)’의 의미로 이해될 수도 있을 것이다.

김택영(金澤榮, 1850~1927)의 다음과 같은 기록도 ①, ②의 “以絲之紅綠青白 反覆比之”라는 진술이 실이 여러 가지 색깔에 물드는 현상으로써 아녀자가 정절을 지키지 못하는 행태를 비유한 것으로 이해되어야 함을 말해 주고 있다.

③ 아녀자가 정절을 지키는 것과 정절을 잃는 것을 실이 빨갛고 푸르고 하얀 것에 비유한 것이다.¹⁴⁾

14) “以婦人守節失節 比於絲之紅綠青白者也”, 金澤榮, 『新高麗史』卷二十 志 樂六.

이 기록은 실이 빨갛게 푸르게 물드는 현상에나 아녀자가 정절을 지키지 못하는 행위를 비유한 것임을 말해 준다. 따라서 실은 곧 아녀자를 비유한 것이고 하얀색은 실의 바탕색으로 어떤 색깔에도 물들지 않은 상태로서 아녀자가 정절을 지키는 태도나 행위를 비유한 것이며 여러 가지 색깔로 물든은 곧 아녀자가 규범에서 벗어난 이런 저런 행동을 함으로써 정절을 지키지 못하였음을 비유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여자는 오로지 한 남자만을 섬겨야 한다는 규범적 윤리. 이 윤리에서 어긋나는 행동을 취하는 것을 하얀실이 여러 가지 색깔로 물드는 현상에다 비유한 것이다. 이처럼 윤리적 관점에서 이해할 때 “反覆比之”에서의 ‘반복(反覆)’은 ‘반복(反復)’의 의미보다는 ‘번복(翻覆)’의 의미로 해석되는 것 이 ①, ②의 문맥적 의미를 좀더 분명하게 파악하는 것일 것이다. 물론 이 때의 ‘번복’이란 한 가지 행동을 취하지 않고 이랬다 저랬다 하는 행동을 가리킨다. 따라서 “실의 붉고 푸르고 푸르고 하얀 것으로써 반복(反覆) 비유하다.”는 진술에서 고려가요 「안동자청」의 반복적 형태를 직접적으로 추론할 수는 없을 것이다.

3. 민사평의 「소악부」의 제5장

민사평(1295~1359)의 「소악부」의 존재가 알려지고 그 제5장이 고려가요 「안동자청」을 소재로 지어진 것이라는 점이 밝혀지면서 『고려사』의 기록이나 『세종실록』의 기사에 의존하여 고려가요 「안동자청」의 주제적 성격을 ‘정절자수(貞節自守)’로 파악하였던 기존의 견해는 전면 부정되었다. 대신 민사평의 「소악부」 제5장과 미찬가지로 고려가요 「안동자청」도 ‘숫총각 숫처녀의 사랑 노래’ 또는 ‘남녀상열의 노래’였다는 견해가 널리 받아들여지게 되었다. 뒤의 주장에 대하여는 최미정이 반론을 제기하였으나, 대부분의 연구자들은 이 두 가지 주장을 대체로 받아들여 왔다. 그러나 고려가요 「안동자청」의 주제적 성격에 대한 『고려사』의 기록과 『세종실록』의 기사가 정보를 왜곡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점에서 이 주장은 당장 받아들이기 어려운 점이 있다. 다음의 두 자료도 이러한 사정을 더욱 분명하게 보여 주고 있다.

① 어제 과충룡(郭翀龍)을 만났는데 급암(及菴)이 (나의) 「소악부(小樂府)」에 화

답하려고 하는데 그 일[소재]이 한결같은데 말이 중복될까 봐 화답하지 못하고 있다는 말을 들었다. 나는 “유빈객(劉賓客)이 「죽지사(竹枝詞)」를 지었는데 모두 기협(夔峽) 지방의 남녀간의 연정을 노래한 말이요, 동파(東坡)는 아황(娥皇)·여영(女英)·굴원(屈原)·회왕(懷王)·항우(項羽)의 고사(故事)를 써서 장가(長歌)를 엮어 만들었습니다. 어찌 앞 사람을蹈습하였습니까? 급암(及菴)께서는 별곡(別曲) 가운데 뜻에 맞는 것을 취하여 새로운 말로 옮기시면 될 줄로 압니다.”라고 일러주고, 두 편을 지어 복돋우었다.¹⁵⁾

② 종백(宗伯) 익재공(益齋公)께서 최근 지은 시 여러 편을 써 보내 주셨는데 그것은 선후배의 차례를 깨넘치 않으시고 후진(後進)을 부추기는 뜻이 깊고 절실하였다. 비록 어리석기는 하지만 어찌 느끼는 바를 모르겠는가? 그러나 스스로 좁렬(拙劣)하다고 생각되어 화답을 하지 못하고 이력저력 지금에 이르렀다. 부끄럽고 송구스러웠는데 공께서는 늑장을 부리고 게으름을 피운 죄를 용서하고 다시 「소악부」 2장을 보여 주셨다. 더욱 감격하고 송구스러워 감히 화답하여 몇 수를 만들어 몸을 정갈히 하고 배껴서 좌우 사람들에게 보여 주었다.¹⁶⁾

①은 이제현(李齊賢, 1287~1367)의 「소악부」 전편과 「소악부」 후편의 사이에 실려 있는 발문(跋文)이다. 이제현은 꽈충룡(郭忠龍)으로부터 민사평이 「소악부」 전편에 대하여 화답하고 싶어 하나 소재가 동일하여 쓸데 없이 말이 중복될 수 있어 화답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정을 전해 듣고는 동일한 소재라 하더라도 시인에 따라 색다르게 표현할 수 있다는 것을 유우석(劉禹錫)의 「죽지사(竹枝詞)」와 소식(蘇軾)의 「죽지가(竹枝歌)」의 전례를 들어 입증하고 새로 「소악부」 후편을 지어 보여 줌으로써 화답을 재촉하고 복돋운 것이다.¹⁷⁾ 이제현의 이

15) “昨見郭獅龍 言及菴欲和小樂府 以其事一而語重 故未也 僕爲劉賓客作竹枝歌 皆夔峽間男女相悅之辭 東坡則用二妃屈子懷王項羽事 紹爲長歌 夫豈襲前人乎 及菴取別曲之感於意者 翻爲新詞可也 作二篇挑之,”『益齋亂藁』卷第四「小樂府」。

16) “伏蒙宗伯益齋公錄示近所爲詩數篇 其折衷行誘按後進之意 深且切矣 雖以庸愚 寧不知感 然自惟拙謬不能攀和 因循至今 惶悚間 公恕其逋慢之罪 再以小樂府二章示之 愈感愈悚 謹和成若干首 薰流繕寫 拜呈左右,”『及菴先生詩集』卷之三。

17) “동파(東坡)는 아황(娥皇)·여영(女英)·굴원(屈原)·회왕(懷王)·항우(項羽)의 고사(故事)를 써서 장가(長歌)를 엮어 만들었습니다.”는 진술에서 ‘장가(長歌)’라는 것이 바로 그의 「죽지가(竹枝歌)」(9장)임은 「동파속집(東坡續集)」 3권에 실린 「죽지가」의 서문을 보면 쉽게 알 수 있다. “竹枝歌 本楚聲 幽怨惻怛 若有所深悲者 豈亦往者之所見 有足怨者歟 夫傷二妃而哀屈原 思懷王而憐項羽 此亦楚人之意 相傳而然者 且其山川

러한 격려에 힘입어 민사평은 「소악부」을 지었는데 ②는 그 사정을 자세하게 보여 준다. 『급암선생시집(及菴先生詩集)』 권지삼(卷之三)의 첫머리에 실려 있는 이 자료는¹⁸⁾ 민사평이 이제현의 「소악부」에 화답하게 된 것이 두 번에 걸친 이제현의 권유에서 비롯된 것임을 말해 주고 있는 것이다.

이 두 자료는 이제현이나 민사평이 한시화한 중심 소재가 과연 어떤 노래들이었을까 하는 의문과, 민사평이 「안동자청」이라는 소재를 어떻게 한시로 표현하였을까 하는 의문에 대한 해답의 단서도 제공해 주는 것으로 보인다.¹⁹⁾

①은 「소악부」 전편의 작품을 일일이 분석하지 않더라도 그것이 당시 궁정에서 유행되던 노래를 소재로 지어진 것임을 알 수 있게 한다. “급암(及菴)께서는 별곡(別曲) 가운데 뜻에 맞는 것을 취하여 새로운 말로 옮기시면 될 줄로 압니다.”라고 한 데서 민사평의 「소악부」뿐 아니라 이제현의 「소악부」 전편의 소재도 「별곡(別曲)」의 노래들이었음을 짐작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여기서 「별곡」이란 구체적으로 무엇을 가리키는가.

이제현의 「소악부」 전편과 민사평의 「소악부」의 중심 소재가 모두 당시 궁정에서 연행되었던 노래라는 것은 이미 여러 차례 지적된 바 있다.²⁰⁾ 다음의 자료

風俗鄙野勤苦之態 固已見於前人之作 與今子由之詩 故特緣楚人疇昔之意 爲一篇九章 以補其所未道者.” 이 서문에서 밑줄친 부분에 특히 유의하여 읽으면 이제현의 앞의 진술이 바로 이 작품을 두고 한 것임을 알 수 있다. 소식의 「죽지가」는 7언 4구로 된 9수의 한시로 이루어져 있으며 그 내용은 앞의 서문에서 밝힌 바와 같다.

- 18) 이 시집은 목판본인데 부분 부분 필사한 부분이 섞여 있다. 이 시집을 보관해 온 후손이 시집이 낡고 인쇄 상태가 좋지 않아 가필(加筆)한 것으로 추정되지만 이 가필이 원본의 잣구를 수정하거나 새로운 내용을 덧보태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 19) 그밖에도 “당시 사대부사회 내부에서 소악부의 창작은 驟增의 참신한 일로서 주목받고 있었다는 사실”뿐 아니라 “소악부의 양식은 애초에 그 성립에 있어서부터 우리 민간가요의 한시 수용에 대해 자각적인 태도를 갖고 있었다는 사실” 등도 추정해 볼 수 있을 것이다. 朴惠淑, *op. cit.*, 55면.
- 20) 李佑成, *op. cit.*, 11면에서는 고려사의 기록과 비교하여 이제현이 먼저 지은 「소악부」 전편 가운데 7편이 「고려사」 악지의 ‘속악’에 언급된 우리 말 노래를 그 소재로 하고 있음을 기적하였고 崔美汀, *op. cit.*, 591면에서는 그 중 1수가 「정과정(鄭瓜亭)」을 소재로 하였으리라 추정하였으며, 朴惠淑, *op. cit.*, 46면에서는 나머지 1수도 「양주(楊州)」를 소재로 하였으리라 추정한 바 있다. 이제현의 「소악부」 후편의 소재가 제주 민요라는 것은 각각의 악부시에 부기된 주석에 분명히 밝혀져 있다. 민사평의 「소악부」의 소재를 명확하게 밝히지는 못하였으나 이 또한 궁정에서 유행한 우리 말 노래였다는 데에는 모

는 ‘별곡’이 당시 궁정뿐 아니라 상층 관료 사회에서 널리 유행되었음을 말해 주고 있다.

③ 얼마전 어떤 현달한 관료가 봉지련(鳳池蓮)이라는 늙은 기생을 회통하며 “당신네들은 재산 많은 불교 승려는 따르고 사대부가 부르면 어찌 그리 더디 오느냐?”라고 하자 늙은 기생은 “지금 사대부는 재산 많은 상인의 딸을 맞아들여 두 집 살림을 차리거나 그렇지 않으면 그 여자 노비를 첨으로 맞아들입니다. 우리들이 만일 승려와 속인(俗人)을 가린다면 어찌 조석(朝夕)을 매우겠습니까?”라고 대답하였다. 좌중(座中)이 모두 부끄러워하는 기색이 있었다. 선우추(鮮于樞)의 「서호곡(西湖曲)」에 “서호 유람선에는 누구집 여자이길래 돈을 탐내어 억지로 노래하고 춤을 추는가?”라고 하고 또 “어느 때 대장부가 천금을 던지며 뽕나무 숲과 복수(濮水)가에서 「행로(行露)」를 노래하게 하려나?”라고 하였다. 송(宋)나라가 망하자 사족(士族)이 이 노래로써 스스로 수양한 것므로 애닮게 여겼다. 탑라의 이 노래는 매우 비루(鄙陋)하지만 민풍(民風)을 봄으로써 시변(時變)을 알 수 있게 한다.²¹⁾

③은 현달한 관료들이나 부를 축적한 승려들은 잔치 자리와 같은 유홍의 공간을 마련하여 기생들을 초청하였고, ‘봉지련(鳳池蓮)’과 같은 기생들은 그런 자리를 찾아 다니며 노래를 부르거나 그들의 비위를 맞춰 주고 일정한 팁을 받아 생활하였다는 당시의 풍속의 단면을 보여 주고 있다. 그러한 유홍의 공간에서 관료들이나 승려들이 기생들과 어울려 음주와 가무를 즐겼으리라는 것은 쉽게 짐작이 가는 일이다. 물론 이제현 자신이 이와 같은 유홍의 공간에서 기생들과 어울려 음주와 가무를 즐겼다고 직설적으로 표현하지는 않았지만, 그런 사정을 어느 정도 짐작할 수 있다. 이제현도 「소악부」 전편의 소재가 된 ‘별곡’을 이런 유홍의 공간에서 기생들의 입을 통하여도 들었을 개연성이 충분히 인정되는 것이다. 물론 궁정을 드나드는 관료들은 궁정 연회에서 ‘별곡’을 들을 수도 있었겠

든 연구자들이 동의하고 있다.

21) “近者有達官 戲老妓鳳芝蓮者曰 爾曹惟富沙門是從 士大夫召之 何來之遲也 答曰 今之士大夫 取富商(sic. 商)之女為二家 否則妾其婢子 我輩苟擇縕素 何以度朝夕 座者有愧色 鮮于樞西湖曲云 西湖蕪舫誰家女 貪得纏頭強歌舞 又曰 安得壯士擲千金 坐令柔漢歌行露 宋亡士族以此自養者故傷之也 耽羅此曲 極為鄙陋 然可以觀民風知時變也”, 「益齋亂藁」卷第四「小樂府」.

지만 이 자료는 궁정 밖에서도 그들이 그런 기회를 쉽게 가질 수 있었음을 보여 주고 있는 것이다.

'별곡'이 궁정뿐 아니라 관료들이 마련한 유흥의 공간에서도 널리 불리게 된 사정은 '봉지련'이라는 기생의 행적을 살펴보면 쉽게 짐작할 수 있다. 이 자료에서 '봉지련'은 관료들이나 승려들의 유흥 공간에 참석하여 그들의 비위를 맞춰 주거나 그들과 어울려 음주와 가무를 함으로써 일정한 텁을 받아 살아가는 늙은 기생으로 서술하고 있다. 그런데 「고려사」에도 '봉지련'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흥미로운 기사를싣고 있어 주목된다.

- ④ 홍안도호부 부사 김서지(金瑞芝)를 파면하였다. 왕의 총애를 받던 여자 '봉지련'은 이 부의 기생이었다. 융리(邑吏) 배도(裴度)가 일찍이 김서지한테 유감이 있어 '봉지련'에게 청탁하여 왕에게 참소하게 하였는데, 드디어 김서지를 파면하고 그 집을 몰수하였다.²²⁾

충렬왕 29년(1303)의 기록인데, 이 때 이제현의 나이는 17세였다. 이 이후로부터 「소악부」후편이 창작된 시기까지의 시간을 고려하면 앞의 자료에서 '늙은 기생'이라고 한 설명은 충분히 이해될 수 있다. 따라서 앞의 두 자료에서의 '봉지련'은 동일 인물임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봉지련'의 삶의 궤적은 '홍안도호부'의 기생 → 충렬왕의 총애 받는 여자 → 관료들나 승려들의 유흥 공간을 전전하는 기생'으로 요약될 수 있을 것이다. 홍안도호부의 기생에 불과하던 '봉지련'이 궁정으로 들어가 왕의 총애를 받게 되었다는 것은 그녀가 미모만 뛰어난 게 아니라 춤과 노래에도 능하였음을 말해 준다. 이러한 삶의 궤적을 거치면서 '봉지련'은 매우 많은 궁정 노래의 레퍼토리를 갖고 있었을 것이며, 늙어서 궁정 밖으로 나와 관료들이나 승려들이 마련한 유흥의 공간을 전전하면서 그런 레퍼토리를 궁정 밖의 관료 사회에 널리 유행시켰을 것이다. 이와 같은 삶의 궤적을 거친 기생이 비단 '봉지련' 한 사람만은 아니었음은 '현달한 관료'가 '당신네들(爾曹)'라고 지칭하고 있는 데서 단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22) “罷興安副使金瑞芝 王之幸姬鳳池蓮者 本府妓也 邑吏裴度 諭有憾於瑞芝 托鳳池蓮訴王 遂罷瑞芝 糿其家”, 『高麗史』世家 忠烈王 五 癸卯 二十九年 六月 己酉, ‘홍안도호부’는 지금의 경상북도 남부 지방(경산, 대구, 성주)과 경상남도 북부 지방(합천)을 관할하는 행정 관청이었다.

이와 같이 궁정의 기생들이 궁정 밖으로 흘러나오면서 관료 사회의 유흥 공간에서도 궁정 노래가 유행하였다면, 이제현이 말한 ‘별곡’이란 당시 궁정과 상충 관료 사회에서 널리 유행한 우리 말 노래를 한정적으로 가리키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제현이나 민사평도 그런 유흥 공간에서 궁정에서 유행되던 ‘별곡’을 들었을 수도 있다. 관료의 신분으로 궁정 연회 공간에 참석할 수도 있고 사적으로 궁정 밖의 유흥 공간에 참여할 수도 있었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제현의 「소악부」 후편의 소재가 ‘제주 민요’라는 점은 이제현이 상충 관료 사회에서 벌어진 연회 공간에서 ‘별곡’을 들었을 개연성을 높여 준다. 그렇다면 궁정 밖의 연회 공간에서는 노래의 레퍼토리가 ‘별곡’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민요’까지를 포함하고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런 노래들 가운데 이제현의 「소악부」 전편과 민사평의 「소악부」는 이미 정제된 악곡에 얹혀 궁정과 상충 관료 사회에서 유행된 우리 말 노래 곧 ‘별곡’을 소재로 지어졌고, 이제현의 「소악부」 후편은 ‘별곡’의 범주에 들지 않는 ‘민요’를 중심 소재로 지어졌던 것이다. ④의 “급암(及菴)께서는 별곡(別曲) 가운데 뜻에 맞는 것을 취하여 새로운 말로 옮기시면 될 줄로 압니다.”라고 한 데서도 이제현 스스로가 ‘별곡’과 ‘민요’를 구분하고 있음을 말해 준다. 이런 점에서도 이제현의 「소악부」 전편과 민사평의 「소악부」는 다같이 궁정 노래이면서 동시에 상충 관료 사회의 연회 공간에서 유행되던 ‘별곡’을 소재로 하였다고 할 수 있다. 물론 ‘별곡’ 가운데는 민요에 기원을 두거나 민요적 성격을 띤 노래가 없지 않았을 터이나 그런 노래일 경우에도 「소악부」 후편의 소재가 된 ‘제주 민요’와는 상당한 거리가 있었기 때문에 이제현은 ‘별곡’과 ‘민요’를 분명하게 구분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고려가요 「안동자청」도 이미 궁정의 노래이면서 동시에 상충 관료 사회에서 널리 유행하였던 ‘별곡’으로서 이제현의 「소악부」 후편의 소재가 된 ‘제주 민요’와는 그 성격이 사뭇 다른 것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이제현이 제주 민요를 소재로 「소악부」 후편을 지었다는 사실은 상충 관료 사회의 연회 공간의 성격이 궁정의 연회 공간보다 개방적이었음을 시사한다. ‘봉지련’과 같은 기생들에 의해 궁정의 노래가 수용되기도 하고 또 다른 기생들에 의해 민요가 수용되기도 하였음을 짐작해 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여기서

상층 관료들의 연회 공간에 수용된 노래는 다시 궁정의 연회 공간으로 수용되었으리라는 점도 짐작해 볼 수 있다. 사실 「소악부」 후편의 소재가 된 민요는 아직 상층 관료 사회에 널리 유행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이 있다. 각 작품의 말미에 별도의 설명을 덧붙인 것은 이러한 추정을 뒷받침해 주고 있다.²³⁾ 만일 민사평이 「소악부」 후편의 소재가 된 제주 민요를 쉽게 들을 수 있었다면 굳이 그와 같은 부연 설명을 할 필요는 없었을 것이다. 이제현이 굳이 제주 민요를 소재로 「소악부」 후편을 새로 지어 보여 준 데에는 한편으로는 「소악부」를 짓는 취지가 무엇인가를 명확하게 전달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그 요령을 좀더 분명하게 보여 주려는 의도도 함축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제주 민요는 관료 사회의 연회 공간에서 쉽게 들어 볼 수 없는 것이었기 때문에 부연 설명을 덧붙였던 것이다. 이제현이 “급암(及菴)께서는 별곡(別曲) 가운데 뜻에 맞는 것을 취하여 새로운 말로 옮기시면 될 줄로 압니다.”라고 한 데에는 또한 상층 관료 사회의 유흥적 연회 공간에서는 ‘별곡’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갖는 일 자체가 어렵지 않았음을 말해 주는 것이기도 하다.

이상의 논의를 종합해 볼 때 이제현의 「소악부」 전편과 민사평의 「소악부」 후편은 모두 ‘별곡’을 중심 소재로 활용한 것이며, 이 때의 ‘별곡’이란 당시 궁정이나 관료 사회의 연회 공간에서 유행한 우리말 노래로 민요 자체와는 상당한 거리가 있는 것이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면 민사평은 ‘별곡’을 어떻게 시화하였을까. ①, ③은 이에 대한 해답의 단서도 갖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①은 악부시(樂府詩)와 그 소재가 된 노래의 성격이 반드시 동일한 것이 아님을 말해 준다. 만일 악부시가 그 소재가 되는 노래의 뜻을 그대로 번역하는 것에 불과하다면 수백년에 걸쳐 그토록 많은 중국의 시인 묵객들이 거듭 ‘죽지사(또는 죽지가)’를 지었던 이유를 설명할 길이 없어진다. 굴원(屈原)은 사천(四川) 지방의 민요를 듣고 새로운 말로 「죽지사」를 지었고, 유우석(劉禹錫)은 굴원의 「죽지사」를 듣고 새로운 말로 「죽지사」를 지었으며, 소식(蘇軾)은 유우석의 「죽지사」를 듣고 굴원·이비(二妃)·초희왕(楚懷王)·항우(項羽)의 고사를 끌어들여 새로운 말로 「죽지가」를 지었다. 때문에 이제현은 “그 일[소재]이 한결같은데 말

23) 이 점에 대하여는 崔美汀, *op. cit.*, 605면에서도 간단히 언급된 바 있다.

이 중복될까 봐 화답하지 못하고 있”는 민사평에게 “어찌 앞사람을 답습하였겠습니까?”라고 반문하고 있는 것이다. 시대가 바뀌고 사람이 변함에 따라 같은 노래라도 새롭게 인식되고 거기에 새로운 의미가 부여되기 마련이다. 이제현은 바로 그러한 이치를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 입증해 보이고 있는 것이다.

①은 또한 「소악부」의 소재가 노래 자체에 국한되지 않았음을 말해 준다. ‘죽지사’의 전통에서도 확인할 수 있는 것이지만, 노래가 그 지방의 풍토(風土)와 인정(人情)을 가장 잘 반영한다는 점에서 노래 자체가 중심 소재이기는 하지만 시대의 변화와 그에 따라 변화된 풍토와 인정이 더욱 중요한 관심의 대상이 되었음을 말해 준다.

이러한 사실은 ③에서 이제현이 선우추의 「서호곡」의 전례를 끌어들인 데서도 단적으로 확인된다. 다음은 선우추(鮮于樞)의 「서호곡(西湖曲)」이다.²⁴⁾

⑤ 호숫가에서 노젓는 이, 뉘 집 아가씨인지?

물어도 대답 없네, 짙은 화장 속엔 슬픔 어려 있고
 머리 숙여 눈물 참고 다른 배로 다가가서
 몇 푼 돈 벌기 위해 노래와 춤 얹지로 하네.
 옥병(玉瓶)의 좋은 술도 시름 씻지 못하고
 물고기 배때기 곰 발바닥 요리도 입에 당기지 않네.
 환회(歡會)의 꿈은 젊아 손님 총총히 떠나가고
 굳게 닫힌 규방(閨房), 찬 바람 들고, 시름겨운 저녁나절.
어디에 대장부 있어 천금(千金)을 선뜻 던져
윤풍(淫風) 가득한 이 지방(地方)에서 정절(貞節)의 노래 부르게 하려나.²⁵⁾

24) 선우추(1256-1302)는 원(元)나라 초기의 문인 관료로서 사(詞)·부(賦)·서(書)·화(畫)에 두루 능통하였으며, 그가 한 때 관직에 추천한 일이 있는 조맹부(趙孟頫, 1254-1322)와 함께 당대 학문적 명성이 높았던 인물이다. 이제현은 1314년 만권당(萬卷堂)에 머무를 때 조맹부(趙孟頫)와 교유 관계를 맺은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 때 그로부터 선우추의 「서호곡」과 그에 관한 이야기를 전해 들었을 것으로 짐작된다. 여기서 「서호곡」은 구체적으로는 「호상곡(湖上曲)」을 가리키는 듯한데, 선우추가 1294년 서호(西湖) 가에 곤학재(困學齋)라는 집을 지어 죽을 때(1296)까지 이 곳에서 살았기 때문에 「서호곡」이라고 불리기도 하였을 것으로 짐작된다. 선우추의 행적과 「서호곡」에 대하여는 朴魯春, 「高麗의 두 小樂府—‘益齋小樂府’와 ‘及菴小樂府’」(제23회 전국국어국문학 학 연구발표대회 발표요지), 『국어국문학』 84, 국어국문학회, 1980. 10, 166~171면을 참조하였다.

(밀줄은 필자)

③에서 이제현이 인용한 것은 ⑤의 제1구와 제4구, 제9구와 제10구임을 알수 있다.²⁶⁾ 박노춘(朴魯春)에 따르면, 『원시선(元詩選)』에는 이 시 다음에 명(明) 나라 도승의(陶崇儀)의 『철경록(輟耕錄)』의 기시를 인용하여 시작(詩作)의 상황과 배경을 설명하고 있는데, 그 설명에 의하면 절강성(浙江省) 지방에는 잔인한 관리가 있어 관전(官錢)을 빌려 갚지 못하는 백성이 있을 때는 그의 처첩과 자녀를 관가에 불들어 두거나, 그래도 갚지 못할 때에는 그 여자들을 배에 실어 서호(西湖)에서 몸을 팔아서 갚게 하였다고 한다. 「서호곡」은 선우추가 이러한 기막힌 상황을 애닮게 여겨 지은 것이라고 한다.²⁷⁾ 이런 설명에 기댈 때 ③의 문맥은 좀더 분명하게 이해될 수 있다.

③에서 봉지련과 같은 기생의 이야기와 ⑤에서 기생으로 전락하여 유람선을 전전하며 억지로 노래하고 춤을 추는 여자들의 이야기는 일맥 상통하는 면이 있다. 이들 기생들은 유홍 공간의 즐거운 분위기에서 자연스럽게 노래를 부르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돈을 위하여 노래하고 춤을 춰다는 것인데, 이는 곧 시대가 변하고 그에 따라 민풍(民風)이 변하였음을 말하는 것이다. 이제현이 제주 민요를 악부시로 읊기면서 굳이 이러한 이야기를 덧붙인 것은 이 이야기 속의 기생들이 부르는 노래와 제주 백성들이 부르는 노래가 상통하는 면이 있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으로 보인다. 노래는 즐거워야 한다. 순수한 성정에서 우러나오기 때문에 자연히 즐거운 분위기에서 불려야 한다. 기생들이 억지로 부르는 노래나 제주 백성들이 부르는 노래는 삶의 궁핍에서 불리는 것으로 즐겁거나 홍겨운 것이 아니다. 이제현은 이러한 노래를 통하여 바로 시대의 변화와 그에 따라 변화된 민풍을 알 수 있다고 한 것이다. ⑤의 시에는 삶의 고통과 그로 인한 슬픔이 배

25) “湖邊蕩槳誰家女 緑慘紅愁問無語 低回忍淚並人船 貪得纏頭(sic. 頭)強歌舞 玉壺美酒不消憂 魚腹熊礮棄如土 陽臺夢短忽去 鑑鎖生寒愁日寒 安得義士擲千金 坐令桑濮歌行路,” *ibid.*, 169~170면에서 재인용. 번역도 그대로 그따랐다.

26) 물론 제1구의 “湖邊蕩槳”이 “西湖畫舫”으로 바뀌어 있고, 제9구의 “義士”가 “壯士”로 바뀌어 있기는 하지만 의미상 차이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 선우추에 대한 기록이 풍부하게 전하지 않고 그의 문집이 이제현이 조맹부와 교유하던 때보다 늦은 시기에 간행된 것으로 추정되므로 이제현의 기록이 더 정확한 것이 아닐까 한다.

27) *Ibid.*, 170면.

어 있고 그러한 고통과 슬픔에서 벗어나 즐겁고 흥겨운 분위기에서 성정에서 우러나오는 노래를 부르고 싶은 소망이 담겨 있다. 이 때문에 이제현은 “송(宋)나라가 망하자 사족(士族)이 이 노래로써 스스로 수양한 것이므로 애닮게 여겼다.”고 한 것이며 그 자신도 ‘별곡’과 제주 민요를 소재로 「소악부」 전·후편을 지은 것이다.

따라서 이들 자료만으로도 민사평의 「소악부」 또한 기생들이 부른 노래 자체의 뜻을 옮긴 것이 아니라 연회 공간의 분위기와 노래를 부르는 기생들의 행태, 그리고 그에 대한 자신의 정서를 아울러 표현한 악부시였다는 점은 어렵지 않게 짐작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점에서 이제현의 「소악부」 전편·민사평의 「소악부」와 그 중심 소재가 된 노래로 추정되는 별곡과의 관계가 다양하게 파악되는 것은 당연히 예상되는 결론이라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악부시의 창작 원리를 감안할 때 민사평의 「소악부」가 고려가요 「안동자청」과 직접적인 관련을 갖는 것이라 하더라도 둘의 ‘취의(趣意)’가 동일한 것이라는 주장을 이끌어낼 수 없는 것이다. 민사평의 「소악부」 제5장이 그 자체로 ‘남녀상열’의 주제로 파악될 수 있다는 점은 모든 연구자들이 동의하는 바이지만, 여기서 고려가요 「안동자청」이 ‘숫총각 숫처녀의 사랑 노래’라거나 ‘남녀상열의 노래’라는 주장을 이끌어낼 수는 없다. 「서호곡」의 제9구와 제10구(밀줄친 부분)는 민사평의 「소악부」 제5장의 소재가 된 「안동자청」이 ‘정절’의 노래 일 가능성뿐 아니라 이별의 슬픔을 노래한 작품이었을 가능성마저 시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별의 슬픔을 표현한 노래였을 가능성은 언뜻 생각하면 「안동자청」이 ‘남녀상열’을 주제로 한 노래였다는 주장을 뒷받침하는 근거가 되는 것 같지만 ‘슬픔’을 초래하는 ‘이별’의 구체적인 실상이 무엇이냐에 따라 그 주제적 성격은 다르게 파악될 수 있다. 만일 「안동자청」이 수총각 숫처녀들의 순수하고 빨랄한 연애 감정을 표현한 것이라면 그런 노래가 이제현이나 민사평의 관심의 대상이 되지는 않았을 것이다. 이제현이 「소악부」를 지은 것이 선우추의 「서호곡」을 인용한 취지와 부합하는 것이라면 그 노래들은 오히려 갈등이나 번민, 삶의 고통이나 슬픔을 담은 노래였을 가능성이 높다. ⑤에서 선우추는 돈을 위하여 억지로 노래하고 춤추는 음풍(淫風) 가득한 지방에서 「행로」와 같은 ‘정

절’의 노래가 불리기를 소망하고 있는데, 이러한 관점의 연장선상에서 보면 민사평의 「소악부」 제5장은 남자와 여자를 시적 화자와 청자로 설정하여 서로의 연애 감정을 드러낸 노래로 이해하기보다는 아녀자의 정절을 권장한 노래로 이해하는 것이 더욱 합리적일 것이다.²⁸⁾

사실 민사평의 「소악부」 제5장은 그 자체로도 일의적(一義的)으로 ‘남녀상열’의 주제로 파악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

⑥붉은실, 초록실, 파란실

어찌 여러 잡색에 물들겠는가?
내 물들이고 싶을 때 마음대로 물들일 수 있는
하얀실이 나에게는 가장 좋아라.²⁹⁾

이 작품은 민사평의 시대에 「안동자청」이 가요로 불리었을 뿐 아니라 민사평 같은 문인에 의해 한시 창작의 소재로도 활용되었음을 말해 준다.³⁰⁾ 그런데 이 우성은 “아무리 吟味해봐도 남편을 섬기는 婦人의 純潔을 말하는 것 같지는 않다. 숫총각 숫처녀가 좋다고 하는 男女相悅之辭임이 분명한 것이다”라 하였을 뿐 아니라 그 소재가 된 고려가요 「안동자청」 또한 ‘남녀상열’의 노래라고 주장하였다.³¹⁾ 이 작품의 주제적 성격을 논의하는 데 있어 가장 핵심이 되는 것은 실의 색깔이 과연 무엇을 비유한 것인가 하는 것인데, 이우성은 이 ‘하얀실’을 ‘숫총각, 숫처녀’의 비유로 파악한 것이다. 최미정과 박혜숙도 비록 원 노래의 한 시화 과정에 대하여는 서로 대립된 견해를 제시하면서도 이 작품에서의 ‘하얀실’이 ‘연정의 대상’을 비유한 것으로 이해하는 점에 있어서는 견해를 같이하고 있

28) 횡수연, 「한역 고려가요의 수용 양상」, 「고려가요의 문화사회학」(임기중 편), 서울:慶雲出版社, 1993, 459면에서는 “외침과 생활고로 인하여 문란해진 절개나 정조관념에 대하여 순수하고 깨끗한 인물을 갈구하는 노래나 여성들이 자신들의 몸을 지키고자 하는 마음을 나타내는 노래라 볼 수 있을 것 같다.”고 한 적이 있다. 이는 직관적으로도 민사평의 「소악부」 제5장이 ‘남녀상열’의 노래로만 파악되는 것이 아님을 단적으로 보여 주는 것이다.

29) “紅絲綠線與青絲 安用諸般雜色爲 我欲染時隨意染 素絲於我最相宜”, 「及菴先生詩集」卷之三「小樂府」六章。

30) 이 작품이 고려가요 「안동자청」을 소재로 지은 악부시라는 점은 기왕의 연구에서 거듭 확인된 바 있고, 필자는 이 견해에 전적으로 동의한다.

31) 李佑成, *op. cit.*, 18면.

다. 물론 그 자체만을 두고 보면, ‘하얀실’은 ‘연정의 대상’을 비유한 것으로 이해 할 수 있고 또 그렇게 이해하는 것이 자연스러워 보인다. 그런데 이 작품 전체에서 그 비유의 원관념을 단정적으로 추정하기는 어려운 점이 있다.

‘하얀실’을 ‘숫총각, 숫처녀’와 같은 ‘연정의 대상’으로 해석하는 주요한 근거 가운데 하나는 “내 물들이고 싶을 때 마음대로 물들일 수 있”다는 것을 성애적(性愛的) 표현으로 볼 수 있다는 점이이다. 이런 해석에 따르면 붉은실, 초록실, 파란실, 하얀실은 각각 어떤 대상의 비유로 파악되어야 한다. 하얀실이 숫총각이나 숫처녀의 비유라면 붉은실, 초록실, 파란실 등도 각각 어떤 대상의 비유라고 보아야 한다. 그러나 색실의 비유가 이렇게 파악될 때 붉은실, 초록실, 파란실은 색깔은 다르지만 하얀실과 반대의 성격을 띤다는 점에서 동일한 대상의 비유로 파악될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성애의 경험’이 있는 남자나 여자를 굳이 여러 가지 색깔의 실에다 비유할 필요가 있었을까 하는 의문이 생길 수 있다. 이러한 의문이 생겨 날 수 있다는 것은 바로 이 작품의 ‘하얀실’이 ‘숫총각, 숫처녀’와 같은 ‘연정의 대상’으로 파악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말이다. 다시 말해 민사평의 「소악부」의 제5장은 그 자체로도 ‘남녀상열’의 노래라고 파악되지 않을 수도 있는 것이다. 사실 ‘실’ 자체를 아녀자의 비유로 보고 ‘하얀실’은 실 자체가 지닌 본디의 색깔이고 여러 가지 색깔의 실은 곧 아녀자가 이런저런 행동으로 본디 색깔을 잃고 다른 색깔에 물든 것으로 보아도 문맥의 흐름이 부자연스러운 것은 아니다. 각각의 색실이 그 자체로 여러 인물을 비유한 것이 아니라 한 인물이 취하는 이런 저런 행동과 태도를 비유한 것이라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될 때 붉은실, 초록실, 파란실의 비유가 합리적으로 이해될 수 있고, ‘반복(反覆) 비유하다’는 의미도 좀더 선명하게 이해될 수 있는 것이다. 제4구의 “하얀실이 나에게는 가장 좋아라”라고 한 진술도 숫총각이나 숫처녀가 좋다는 의미로 해석하기보다는 하얀실로 비유된 시적 주인공이 다른 색깔로 물들지 않고 실의 본디 색깔인 하얀색을 지켜 나가겠다는 의미로 해석하는 것이 더욱 자연스러울 것이다. 발화의 주체가 시인 자신이든 「안동자청」의 주인공이든 규범에서 벗어난 이런 저런 행동을 하는 것보다는 규범적에서 벗어나지 않는 행동을 하는 아녀자가 좋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이 민사평의 「소악부」 제5장은 그 자체로도 '정절자수(貞節自守)'의 노래로 파악될 수 있는 것이다. 사실 7언4구의 함축적인 표현을 통하여 고려가요 「안동자청」의 모습을 추정하는 일도 어려울 뿐 아니라 그 전화(轉化) 과정에서 시인이 어디에 초점을 두었는지 파악하기도 어려운 일이다. 그러나 주제적 측면에서 민사평의 「소악부」 제5장이 그 자체로도 '정절자수'의 노래로 파악될 수 있다는 것은 "남녀상열(男女相悅) → 남녀상열(男女相悅)"의 방향으로만 수용되지 않았을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는 뜻이다. 이런 가능성은 유우석의 「죽지사」, 소식의 「죽지사」에서도 거듭 확인된 것이다.

고려가요 「안동자청」의 주제적 수용은 이론적으로 다음과 같이 네 가지 방식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A)

(B)

- ① 정절자수(貞節自守) → 정절자수(貞節自守)
- ② 정절자수(貞節自守) → 남녀상열(男女相悅)
- ③ 남녀상열(男女相悅) → 남녀상열(男女相悅)
- ④ 남녀상열(男女相悅) → 정절자수(貞節自守)

민사평의 「소악부」 제5장이 일의적으로 '남녀상열'의 노래로 해석될 수밖에 없다는 전제 위에 서게 되면 그 「안동자청」 수용 방식은 ②, ③으로 압축될 수 있는데,³²⁾ 앞서 논의에서 그런 전제가 절대적으로 참이라 할 수 없음을 확인하였다. 설령 민사평의 「소악부」 제5장이 「남녀상열」의 노래로 파악된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실과 고려가요 「안동자청」이 「남녀상열」의 노래라는 것은 필연적인 연관 관계를 갖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①, ④의 방식도 얼마든지 가능한 것이다. 그런데 『고려사』의 편찬자들이나 『세종실록』의 관습도감의 관료들에 의하여 ④의 방식에 따라 왜곡·수용되었을 가능성이 줄어들면 줄어들수록 ③의 가능성도 줄어들 것이고 상대적으로 ①, ②의 가능성은 배가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민사평의 「소악부」 제5장이 '정절자수'의 노래로 파악될 수 있다는 것은 『고려사』의 편찬에 관여한 관료들이나 『세종실록』에 나타난 관습도감의 관료들뿐 아니라 민사평 또한 ①의 방식에 따라 고려가요 「안동자청」을 수용하였을 개연성이 충

32) ③은 이우성·박혜숙에 의해 주장되었던 것이고 ②는 최미정에 의해 주장되었던 것이다.

분히 인정된다는 것을 말해 주고 있다.

그러나 민사평의 「소악부」 제5장은 그 자체로는 ②, ③의 가능성은 부정할 만한 확정적인 근거가 되지 못할는지 모른다. 이러한 문제와 관련하여 이유원의 『해동악부』에 들어 있는 「안동자청」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 자료는 이러한 문제에 대한 해결의 단서를 갖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이다.

4. 이유원의 『해동악부』의 「안동자청」

이유원(李裕元, 1814~1888)의 『해동악부』는 모두 100편의 악부시가 실려 있으며 그 가운데 「안동자청(安東紫青)」이란 제목의 악부시가 있다. 이 작품의 존재는 우선 조선 후기에 이르기까지 궁정의 노래가 한시 창작의 소재로 활용되었음을 말해 준다. 악부시라는 점에서는 민사평의 「소악부」 제5장과 동일한 성격을 띠고 있으면서도 『고려사』의 기록과 동일한 정보를 아울러 갖고 있어 특히 주목할 필요가 있다.

몸으로써 한 분만을 섬긴 복주낭(福州娘)

아녀자에 대한 계율이 부질없이 교의방(數義方)을 이루었네.

붉은 것은 초록이 될 수 없고 파란 것은 회어질 수 없는 법

근거없이 떠도는 소문의 반복(反覆)은 행동거지(行動舉止)에 달려 있다네.

[아녀자는 자기 몸으로써 한 사람을 섬기는데 한 번 제 몸을 잃으면 사람들로부터 천하게 여겨지고 미움을 사게 되므로 이 노래를 지었다. 실의 붉고 푸르고 파랗고 하얀 것으로써 반복(反覆) 비유함으로써 취사(取捨)의 결정에 이르게 한 것이다.]³³⁾

팔호 안의 주석은 『고려사』의 기록과 동일하다. 『고려사』의 기록에서 한 가지 의문점으로 제기될 수 있는 것은 “취사의 결정에 이르게 하다(以致取舍之決)”에서 취사(取捨)의 주체와 대상이 무엇이냐 하는 점인데, 이 자료는 이에 대하

33) “以身事一福州娘 女誠漫成數義方 紅不綠兮青不白 游辭反覆任行藏(婦人 以身事人 一失其身 人所賤惡 故以絲之紅白青綠 反覆比之 以致取捨之決)”, 李裕元, 「嘉梧藁略樂府」, 「海東樂府」.

여 일정한 정보를 담고 있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고려사』의 기록이나 이 자료의 주석 자체의 문맥으로는 그 주체와 대상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파악되지 않는다. 이 두 자료에만 기댈 때 '취사'의 주체는 '아녀자(婦人)' 자신일 수도 있고 '남편 혹은 남편을 포함한 시댁'일 수도 있다. 만일 주체가 '아녀자'라면 정절을 지키는 행동을 취하고 그렇지 못한 행동을 버리는 것이 될 것이고, 그 주체가 '남편 혹은 남편을 포함한 시댁'이라면 취하는 것은 '아녀자'가 될 것이고 그 '아녀자'는 '하얀실'과 같이 정절을 지킨 인물이 될 것이다. 물론 취사의 주체가 독자이고 그가 노래 속의 주인공 곧 '아녀자'의 행동이 과연 정절을 지킨 행동인지 아닌지를 판단하게 한다는 의미로 이해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고려사』의 기록이나 이유원의 「안동자청」의 주석에 기댈 때 세번째 가능성은 현저히 줄어드는 것이다. 그리고 이유원의 악부시 「안동자청」의 제4행의 의미를 감안할 때 두번째 가능성도 회박해진다. 따라서 고려가요 「안동자청」은 아녀자 자신이 스스로 어떤 행동을 취하였고 또 취해야 하는가를 실의 색깔이 변화하는 이치로써 보여 준 노래로 추정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악부시 「안동자청」에는 민사평의 「소악부」 제5장보다 훨씬 구체적인 시적 상황이 설정되어 있다. 제1구에는 노래의 주인공이 평생 한 남자만을 섬긴 복주랑(福州娘)으로 설정되어 있다. 고려가요 「안동자청」의 문학적 성격을 규명하는 데 있어 '안동자청'이란 제목이 무엇을 뜻하는지 하는 문제가 매우 중요한 관건이 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거론된 적이 없다. 그런데 제1구는 이에 대한 해결의 단서를 갖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 단서란 바로 시적 주인공이 '복주랑(福州娘)'으로 설정되어 있다는 데서 찾을 수 있다.

『고려사』 지(志) 제11, 지리(地理) 2에 의하면, 안동부(安東府)는 고려 신종(神宗) 7년(1204)에 안동대도호부(安東大都護府)로 승격되었다가 충렬왕 34년(1308)에 복주목(福州牧)으로 격하되었다. 그 후 공민왕(恭愍王) 10년(1361)에 안동대도호부(安東大都護府)로 승격되었다. 그렇다면 안동부가 복주목으로 격이 낮추어져 불린 것은 1308년에서 1361년 사이이다.

물론 조선 후기까지 안동이 한 때 복주로 불렸다는 기록이 전해지고 또 한편으로는 그랬게 불렸을 가능성이 없으나, 그럴 경우에도 굳이 격하되어 불

린 이름을 쓸 필요는 없었을 것이다.³⁴⁾ 그렇다면 이유원은 고려가요 「안동자청」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자료를 갖고 있었으리라 짐작해 볼 수 있다.

사실 이유원의 『해동악부』는 100여 수나 되는 방대한 양의 악부시로 이루어져 있고 그 가운데에는 다른 악부시집에서 찾아 볼 수 없었던 고려가요의 이름이 제목으로 설정되어 있는 경우가 여럿 발견된다. 「안동자청」도 그 가운데 하나이다. 이런 점도 이유원이 단순히 「고려사」의 기록이나 그 이전의 다른 문인 관료들의 악부시집만을 참조하여 『해동악부』를 짓지는 않았으리라는 짐작을 해 볼 수 있게 한다.

물론 결정적인 자료가 없기 때문에 단정적으로 판단할 문제는 아니지만 이 시기에도 「안동자청」이 궁정이나 상층 관료 사회에 유행하였을 가능성은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가 주요 관직을 두루 역임하였다는 사실은 그가 궁중의 각종 연회에 자주 참석하였을 가능성을 시사한다.³⁵⁾ 100여 수의 악부시를 지을 수 있었던 것도 이러한 관직을 거치면서 궁중 연회에서 불리는 노래를 직접 들었거나 궁중이나 관서에 전해지던 노래와 그 관련 자료를 섭렵하였기에 가능했던 것으로 짐작된다. 앞서 인용하였던 『세종실록』의 기사에서 한 가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관습도감에서 「원홍곡」과 「안동자청」을 다시 관현에 옮겨 악가로 쓰자는 계를 올렸을 때 세종이 “그렇게 하도록 하였다.”고 한 것인데, 이는 고려가요 「안동자청」이 실제로 궁정 노래로 연행되었음을 말해 주는 것이기도 하다.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해 볼 때 이유원이 얻을 수 있었던 고려가요 「안동자청」에 대한 정보는 「고려사」의 기록이나 『세종실록』의 기록보다 훨씬 구체적이었을 것이다. 그러한 정보 가운데는 「안동자청」의 노랫말도 포함되어 있었으리라는 짐작을 해 볼 수 있다.

이유원의 「안동자청」이 「고려사」의 기록이나 『세종실록』의 기사 그리고 민사

34) 이러한 추정은 불확실하고 또 「안동자청」이 궁정 또는 상층 관료 사회에서 불렸던 시기를 추정하는 데 결정적 요소가 되지는 않는 것으로 보인다. 가능한 추정이라는 점만 밝혀 두고자 한다.

35) 이유원은 1841년 문과에 급제한 후로 예문관검열, 규장각대교, 의주부윤, 함경도관찰사, 좌의정, 수원유수, 영증추부사, 영의정 등을 역임하였다.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18,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91, 138면.

평의 「안동자청」보다도 고려가요 「안동자청」에 대하여 훨씬 더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해 주고 있다는 점도 이런 짐작을 가능하게 한다.

제2구는 문제적 상황을 제시하고 있다. 여자에 대한 계율이 부질없이 교의의 방도를 이루었다는 것은 주인공 '복주랑'이 평생 제 남편만을 섬겼음에도 불구하고 문제적 상황에 부딪혔음을 시사한다. 제3구는 한 번 물든 실의 색깔이 변할 수 없음을 거듭 말함으로써 규범적인 행동의 소중함을 다시 한 번 일깨우고 있으며, 제4구에서는 근거없이 떠도는 소문은 규범적인 행동의 실천에 의해 반드시 해명될 것이고 따라서 문제적 상황도 해결될 것임을 강조하고 있다. 여기서 제2구의 문제적 상황이란 오해에 의해 빚어진 것이고 그것은 '복주랑'이 여러 가지 색깔로 물들었다는 소문이 나도는 상황이나 그러한 소문으로 인해 가정으로부터 쫓겨난 상황일 것으로 짐작할 수 있다. 제3구와 제4구에서 실의 색깔이 변화하는 이치와 사람의 품성이나 행동 따위가 바뀌는 이치를 대비시키고 있는 것은 『고려사』와 『세종실록』이 공통으로 갖고 있는 정보와 상통하는 면이 있다.

이와 같이 이유원의 「안동자청」이 민사평의 「소악부」 제5장보다 훨씬 더 구체적인 시적 상황을 설정하고 있을 뿐 아니라 거기에서 추론할 수 있는 고려가요 「안동자청」에 대한 정보 또한 훨씬 풍부한 것이다. 이는 이유원이 단지 『고려사』의 기록에만 의존하여 악부시 「안동자청」을 짓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말해 준다.

따라서 제1구에서 이유원이 악부시 「안동자청」의 시적 주인공을 '복주랑(福州娘)'으로 설정한 것이 단지 안동이 과거 어느 때에 복주로 불렸기 때문이라기보다는 '복주'와 고려가요 「안동자청」과의 관계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가 있었기 때문이었을 것으로 추정해 볼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안동이 1308년에서 1361년 사이에 복주로 불리었다는 사실에 다시금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제현의 생몰연도가 1295년~1359년이고 민사평의 생몰연도가 1287년~1367년인 점을 감안하면 이제현과 민사평이 「소악부」를 지은 것은 아무리 늦어도 14세기 중반 이전으로 추정되는데, 이는 1308년과 1361년 사이에 든다. 이러한 사실은 이유원이 시적 주인공을 '복주랑'으로 설정한 것과 밀접한 연관을 갖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봉지련'이라는 기생이 충렬왕의 총애를 받아 안흥도호부

의 부사를 파직시켰다는 소문의 시발점이 1303년이라는 점, 이제현이 말한 대로 봉지련이 현달한 관료들의 연회 공간에 불려가 노래를 불렀을 때 봉지련이 ‘늙은’ 기생이었다는 점, 그리고 이제현이 「소악부」를 지은 것이 그 얼마 후의 일이라는 점 등을 고려할 때³⁶⁾ 고려가요 「안동자청」은 아무리 늦어도 1320년 이전에 이미 궁정이나 상층 관료 사회의 연회 공간에서 불리었으리라는 추정을 해 볼 수 있다. 1303년에 봉지련이 20세 안팎이었을 것이고 ‘늙은 기생’이라 한 것은 아무리 늦어도 10여 년 뒤에 불여졌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고려가요 「안동자청」은 아무리 빨라도 1308년 이후, 아무리 늦어도 1320년 이전에 궁정 노래로 불리기 시작하였으리라는 추정을 해 볼 수 있을 것이다.

고려가요 「안동자청」이 안동 곧 ‘복주’라는 지명과 직접적인 관련을 갖는 것이라는 점은 그 장르적 성격 문제와도 연관지어 생각해 볼 수 있다. 노래의 주인공이 ‘아녀자’로 설정되어 있고 ‘복주’ 곧 안동이라는 지명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것은 곧 이 노래가 원래는 안동 지방의 민요였으리라는 추정을 해 볼 수 있게 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안동자청」이란 제목에서 ‘안동’이라는 것이 특정한 지방과 관련된다는 사실에서 고려가요 「안동자청」이 곧 그 지방의 민요였다는 결론을 단선적으로 이끌어 낼 수 있는 것일까.

이 물음의 해결의 단서는 바로 그 제목 자체에도 함축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안동자청」의 ‘자청(紫青)’이란 무엇인가. 『한어대사전(漢語大詞典)』에는 ‘자청(紫青)’을 다음과 같이 풀이하고 있다.

36) 이와 관련하여 성호경(成昊慶)은 민사평이 이제현을 ‘종백’이라고 부른 점을 중시하여 이 호칭이 쓰일 수 있었던 것은 이제현이 예부의 관직에 있을 때이므로 1307년과 1320년 사이에 「소악부」가 창작되었고 따라서 아무리 늦어도 이 시기에 「안동자청」이 궁정 노래로 불렸으리라는 추정을 한 바 있다(成昊慶. 「益齋 小樂府와 及齋(sic. 蔴) 小樂府의 제작시기에 대하여」, 『韓國學報』第61輯, 서울: 一志社, 1990. 12; 『韓國詩歌의 類型과 樣式 研究』, 경산: 영남대학교출판부, 1995. 163~182면). 그러나 ‘종백’이라는 호칭이 이색(李穡, 1328~1396)의 지적대로 “나라 풍속에 進士及第者가 그 座主의 아들을 宗伯이라고 불렀다”고 한다면 민사평이 이제현의 아버지 이진(李璉)이 고시관으로 있을 때 문과(文科)에 급제한 사실에 비추어 볼 때 두 사람이 엄밀한 의미에서의 문생(門生)·좌주(座主)의 관계는 아니었다 하더라도 그 호칭이 확장적으로 쓰였을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일 것이다. 이렇게 보더라도 이제현과 민사평의 「소악부」는 1320년에서 그리 멀리 않은 시기에 지어진 것임에는 분명하다.

자청(紫青) : 청자(青紫), 승상(丞上) · 태위(太尉)는 모두 붉은 인끈에 금박을 입하고 어사(御使) · 대부(大夫)는 은박을 푸른 인끈에 새겼다. 나중에는 높은 관직을 일컫는 말로 쓰이게 되었다.

청자(青紫) : ① 옛날 공경(公卿)의 인끈의 색깔. 고관(高官) · 현작(顯爵)을 가리킬 때 쓰였다.

② 현귀(顯貴)한 옷.

이 설명에 따르면 '자청(紫青)'은 높은 관직이나 높은 관직에 있는 사람이 입는 옷을 뜻한다. 안동 지방이란 것과 고위 관직이라는 것이 어떤 관련성이 있는가. 앞의 것은 「안동자청」의 민요적 성격과 연관되는 듯한 데 비하여 뒤의 것은 비민요적 성격과 연관되는 것이 아닌가.

이와 관련하여 백원항(白元恒)의 「백사음(白絲吟)」은 주목할 만한 자료가 된다. 「백사음」은 그 시적 상황 설정이 이유원의 「안동자청」의 그것과 매우 흡사 할 뿐 아니라 울긋불긋한 비단 옷을 소재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5. 백원항의 「백사음」

백원항(白元恒)의 생몰 연대에 대하여는 자세하게 밝혀진 바가 없으나 이제 현보다 30여 년쯤 앞선 인물인 것으로 보인다. 고려사에 나타난 그의 행적 가운데 그 연도가 밝혀져 있는 것은 다음 도표와 같이 정리될 수 있다.

백원항이 국자감시에 수석을 합격한 1279년은 이제현이 태어나기 8년 전이고 이제현이 성균관시(成均館試)에 합격하고 과거에 급제한 것이 1301년의 일이므로, 그는 이제현보다 적어도 30년 정도 선배임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백원항이 30년 정도의 연배이기는 하지만 두 사람은 거의 비슷한 시기에 비슷한 관직에서 비슷한 일을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이제현(1287~1367)은 1316년 충선왕을 대신하여 서촉(西蜀)의 아미산(峨眉山)에 치제(致祭)를 올렸고 1319년에는 충선왕이 절강(浙江)의 보타사(寶陀寺)에 강향(降香)하러 갔을 때 시종하였다. 1320년 지밀직사(知密直事)로 있을 때에는 지공거(知貢擧) 곧 과거 시험 고시관을 지내기도 하였으며, 1323년에는 충선왕 방환 운동을 벌이기도 하였다. 1324년에

서기	왕 력	월 일	관 직	행 적
1279	忠烈王 5년	5월		國子監試에 수석 합격함.
1311	忠宣王 3년	4월 壬子日	知讞部事	選軍 別監使로 임명됨
1314	忠肅王 원년	윤3월 壬申日	(前 典校令)	尹莘傑·尹宣佐와 함께 충숙왕에게 通鑑을 進講하게 됨.
1317	忠肅王 4년	9월		進仕試同考試官이 되어 洪義孫 등을 뽐음.
1318	忠肅王 5년	1월 丙子日		崔元茂·尹莘傑과 함께 충숙왕이 주최한 연회에서 시를 짓고 화답함.
1321	忠肅王 8년	1월 甲辰日 4월 壬申日 12월 丁未日	密直司 僉議評理	密直司로 임명됨. 僉議評吏로 임명됨. 朴孝修등과 함께 元 中書省에 上王(忠宣王)을 들려 보낼 것을 요청하는 글을 올림.

는 밀직사(密職司)로 임명되었으며 1325년에는 첨의평리(僉議評理)·정당문학(政堂文學)으로 임명되었다. 이 시기 이제현의 이러한 행적은 백원항의 그것과 매우 흡사함을 알 수 있다. 이러한 행적의 유사성에 비추어 볼 때 백원항 또한 당시 궁정 또는 상층 관료 사회의 연회 공간에서 유행되던 '별곡'을 직접 들었을 것으로 짐작할 수 있다.

백원항의 「백사음(白絲吟)」은 당시 궁중이나 상층 관료사회에 유행되던 우리 말 노래 가운데 하나를 한시로 수용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리고 그 노래란 다른 아님 「안동자청」임은 이유원의 「안동자청」과 비교해 보면 어렵지 않게 알 수 있을 것이다.

이유원의 「안동자청」은 '복주랑'이 가정으로부터의 분리를 경험하고 있는 인물로 파악될 수 있음을 살펴 보았다. 그리고 그 주석의 내용과 관련지어 고려할 때 고려가요 「안동자청」의 주인공도 실제로는 남편에 대한 정절을 지켰음에도 불구하고 오해를 받아 가정으로부터 분리된 인물로 파악될 수 있었다. 그에 따라 제3구, 제4구는 비록 한 번 물든 실의 색깔은 바뀌어질 수 없다 하더라도 규

범적인 행동 곧 덕행의 실천에 의해 진실은 밝혀질 것이고 그에 따라 주인공은 가정으로 복귀하게 될 것이라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었다. 만일 이러한 해석이 가능하다면 고려가요 「안동자청」은 애초부터 ‘정절자수(貞節自守)’의 노래였다고 할 수 있다.

이유원의 「안동자청」과 백원항(白元恒)의 「백사음(白絲吟)」과의 비교는 이보다 훨씬 많은 정보를 제공해 준다. 주제적 성격뿐 아니라 장르적 성격에 관하여도 일정한 정보를 제공해 줄 것이다. 논의의 편의를 위하여 두 작품을 함께 인용하기로 한다.

① 몸으로 써 한 분만을 섬긴 복주낭(福州娘)

여자에 대한 계율이 부질없이 교의방(數義方)을 이루었네.

붉은 것은 초록이 될 수 없고 파란 것은 회어질 수 없는 법

근거없이 떠도는 소문의 반복(反覆)은 행동거지(行動舉止)에 달려 있다네.

② 흰 실은 곱디 고와 눈꽃처럼 흰데

비단 위에 새로 놓은 무늬 알록달록 눈에 어린다.

미인의 뜻은 귀공자의 옷에 있어

고운 손 은근히 자와 칼을 잡는다.

시어미 밉다, 시어미 밉다, 시어미 과연 밉다.

우리집은 바느질을 허락하지 않는구나.

예로부터 듣기 좋은 말은 피리 혁 같이 즐겨한다던가

오늘 아침 나를 친정으로 돌려 보내네.

문을 나서 둥지고 서서 눈 바람에 우노라니

서북 만리 구름 하늘만 멀구나.

구름 하늘만 멀고 낭군은 볼 수 없으니

꺾어진 쑥과 같은 신세, 길은 멀고 마음은 아득하여라.

붉은 줄 타고 싶은데 세상에 들어 줄 사람 없어

공연히 한낮에 동쪽으로 흐르는 물을 한탄한다.

하얀실은 한 번 물들면 회어질 수 없지만

버려진 첨이 다시 돌아올 날은 기약 있으리.³⁷⁾

37) “白絲鮮鮮雪華白 錦上新紋眩紅碧 美人意在公子衣 繼手殷勤把刀尺 姑惡姑惡姑結果惡
不許儂家事縱作 古來巧語悅如簧 使妾今朝還故鄉 出門背立泣風雪 西北萬里雲天長
雲天長不見郎 斷蓬路遠心茫茫 欲彈朱絃世無耳 空嗟白日東流水 白絲一染無白時 棗

②는 『동문선(東文選)』, 『청구풍아(青丘風雅)』, 『대동시선(大東詩選)』 등에 실려 전하는 「백사음(白絲吟)」 전문인데, ①에서 제시된 시적 상황과 흡사하면 서도 그보다 훨씬 더 구체적인 면모를 보여 주고 있다. ②의 제1구~제4구는 흰 실과 비단 위에 수놓은 알록달록한 색깔이 눈을 어지럽게 하지만 부인[美人]이 칼과 자를 잡은 것은 남편[公子]의 옷을 만들기 위한 것이었음을 말하고 있는데, 이는 평생 한 분만을 섬겼다고 한 ①의 제1구의 상황과 관련된다. ②의 제5구~제8구는 오해로 인해 거짓 소문이 나돌게 되고 급기야는 시어머니에 의해 시댁에서 친정으로 쫓겨나는 문제적 상황을 보여 주는데, 이는 여자에 대한 계율이 부질없이 교의(數義)의 방도를 이루었다는 ①의 제2구의 상황과 관련되는 것이다. 그리고 ②의 제15구~제16구는 실의 색깔이 바뀌는 이치와 사람의 삶의 태도가 바뀌는 이치를 대비시킨 점에서 ①의 제3행~제4행과 관련된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이 백원항과 이제현의 행적의 유사성과, ①과 ②의 시적 상황의 유사성에 근거할 때 ②는 고려가요 「안동자청」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것이라 할 수 있고, ①과 ②가 다같이 「안동자청」을 한시에 수용한 것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실제로 ①, ②에 근거할 때 『세종실록』에서 “지금 그 노랫말을 보건대 자 청조는 아녀자가 정절을 스스로 지켜 다른 사람의 더럽히는 바가 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라는 설명이 충분히 이해될 수 있다.

그런데 ②는 ①보다도 훨씬 더 많은 정보를 갖고 있으며, 그러한 정보는 원 노래의 모습에 좀더 가까이 가 있다는 판단을 할 수 있게 된다. 상식적인 판단으로도 7언 4구의 짧은 형식보다는 7언 16구의 긴 형식이 원 노래의 모습을 훨씬 더 구체적으로 옮길 수 있는 것이다.³⁸⁾

妾重來當有期.” 이 작품은 『동문선(東文選)』, 『청구풍아(青丘風雅)』, 『대동시선(大東詩選)』 등에 실려 있다. 「청구풍아」와 「대동시선」에는 제4행의 ‘殷勤’이 ‘慇懃’으로 되어 있고, 「청구풍아」에는 ‘姑惡’에 대하여 “姑惡鳥鳴, 陸放翁詩 玛聽姑惡聲 無乃遺婦魂”라는 주석이 붙어 있을 뿐 아니라 작품에 대한 설명까지 덧붙여져 있다. 「대동시선」에는 제1행의 ‘華’가 ‘花’로 되어 있고 제9행~제12행이 “문을 나서니 만리나 뻗친 구름/ 하늘은 길고 낭군은 만나지 못하였네./꺾어진 쑥 길은 멀고 마음은 아득하여라.(出門萬里雲 天長不見郎 斷蓬路遠心茫茫)”로 되어 있다. 따라서 몇몇 글자가 달라진 것은 있지만 작품 전체의 의미를 결정적으로 뒤바꿔 놓을 만한 차이는 없다.

②가 고려가요 「안동자청」의 원 모습에 좀다 가까이 가 있는 작품이라 할 때 ②를 통하여 고려가요 「안동자청」의 내용을 좀더 구체적으로 추정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우선, 고려가요 「안동자청」의 주인공은 아녀자로 진실로 한 남자[男便]를 사랑하여 남편을 위하여 청홍(靑紅)의 비단을 재단하여 하얀실로 춤옷을 봉제하려 하였으나 시어머니로부터 오해를 받아 시댁에서 쫓겨나게 된 아녀자婦人]일 것으로 추정해 볼 수 있다. “우리집은 바느질을 허락하지 않는구나”라고 한 것은 춤옷을 만들기 위해서는 비단을 재단하고 하얀실로 봉제하는 바느질이 마치 하얀실이 여러 가지 색깔에 물드는 현상에 비유되어 아녀자의 규범에서 벗어나는 방정하지 못한 행위로 인식될 수 있었음을 말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하얀실로 여러 가지 색깔의 비단과 도구를 가까이할 수밖에 없는 바느질 자체는 바느질을 하는 주인공의 내면의 진실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는 정절을 잃은 행위로 인식될 수 있었을 것이다. 고려가요 「안동자청」에는 이러한 잘못된 인식 때문에 주인공이 친정으로 쫓겨나게 되고 그러한 상황에 직면하여 억울하고 답답한 심정을 표현함으로써 다시금 시댁으로 돌아가기를 회구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해 볼 수 있다. 하얀실이 한 번 물들면 회어질 수 없는 이치는 주인공의 행위를 비난하는 사람들의 논리인 동시에 주인공 자신의 논리가 되기도 한다. 딴 사람들은 주인공의 행위가 하얀실에 여러 가지 색깔이 물들었기 때문에 이 논리로써 주인공을 비난하는 것이고, 주인공은 동일한 논리로써 자신의 행위가 결코 다른 잡색에 물들지 않았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②의 제15구~제16구 “하얀실은 한 번 물들면 회어질 수 없지만/벼려진 첨이 돌아갈 날은 기약있으리.”라는 진술은 주인공 자신의 독백으로 파악될 수도 있고 고려가요 「안동자청」의 주인공의 행위에 대한 시인 자신의 판단으로 파악될 수도 있다. 이는 “하얀 실은 한 번 물들면 다시 회어질 수 없으나 사람의 마음은 후회하고 바뀌는 이치가 있다. 그 바라는 바가 몹시 절실하다. 시인의 충후함이 지극함을 엿볼 수 있다.”고 한 『청구풍아』의 비평에서도 확인되는 것이

38) 제11구는 6언이고, 「대동시선」에는 아예 한 구가 빠져 있다. 이러한 형식적 비정체성은 「백사음」이 우리 말 노래를 수용함에 있어 원 노래의 취의를 최대한 존중하였음을 말해 준다고 할 수 있다.

다.³⁹⁾ ②의 제1구~제14구까지는 ‘아녀자’가 진실로 잡색에 물들지 않았다는 것을 거듭 말하고 있는데 마지막에 이르러 “사람의 마음은 후회하고 바뀌는 이치가 있다.”는 것은 실의 색깔의 변화와 사람의 마음의 변화는 그 이치가 다르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 이는 시인 백원항과 『청구풍아』의 편찬자는 주인공의 행위가 비록 여러 잡색에 물든 것은 아니지만 오해를 불러 일으킬 만한 소지는 충분히 갖고 있었다고 보는 것이고 따라서 그러한 오해의 소지조차 불러 일으키지 않도록 경계한 것이라 할 수 있다. ①의 제3구~제4구도 이러한 의미로 이해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민사평의 「소악부」 제5장의 제3구~제4구는 그 자체로 ‘남녀상열’을 노래한 것인지 ‘정절자수’를 노래한 것인지 분명하지 않고 어느 쪽 으로도 해석될 여지를 갖고 있는 것이라면, 백원항의 「백사음」이나 이유원의 「안동자청」과 동일한 관점에서 고려가요 「안동자청」을 수용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일 것이다. 그렇다면 결국 백원항, 민사평, 「고려사」 편찬자, 『세종실록』에 나타난 관습도감의 판료, 이유원 등은 동일하게 고려가요 「안동자청」의 주제를 ‘정절자수’로 파악하였고 그러한 주인공에 대하여 긍정적인(또는 동정적인) 시선을 갖고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6. 문학적 성격

이상의 논의는 다음과 같은 자료의 실상을 어떻게 하면 가장 합리적으로 이해될 수 있는가 하는 문제를 따지면서 고려가요 「안동자청」의 주제적 성격과 장르적 성격을 중심으로 그 문학적 성격을 추정해 본 것이다.

- (1) 「고려사」의 기록과 『세종실록』의 기록 그리고 이유원의 「안동자청」의 주석은 고려가요 「안동자청」의 주제적 성격에 대하여 기본적으로 동일한 정보를 담고 있다.
- (2) 이유원의 「안동자청」은 고려가요 「안동자청」에 대하여 ①의 자료들보다

39) “白絲一染 不能使之還白 人心則或有悔悟變易之理 其期望深切 可見詩人忠厚之至”，
「青丘風雅」卷二 東。

훨씬 체화된 정보를 담고 있다.

- (3) 백원항의 「백사음」은 이유원의 「안동자청」과 그 주석에 나타난 고려가요 「안동자청」에 대한 정보를 고스란히 담고 있으면서도 그보다 한층 더 구체적인 정보를 담고 있다.

앞의 논의는 결국 이러한 사항들이 합리적으로 이해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한 것이다. 그 결과 고려가요 「안동자청」의 주제적 성격이 '남녀상열'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녀자의 정절자수(貞節自守)'에 있는 것임을 확인함으로써 『고려사』의 기록과 『세종실록』의 기사가 원 노래의 실상을 왜곡한 것이 아니라 그 주제적 성격을 정확하게 파악한 것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아울러 지금까지 '남녀상열'의 노래로 해석되어 왔던 민사평의 「소악부」의 제5장도 윤리적 관점에서 재해석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박혜숙은 “여말에 소악부가 지어진 것은 무엇보다 세상의 기미와 民風을 그대로 드러내기 위해서인데, 이러한 점을 염두에 둔다면, 왜 시인이 유독 위의 작품들에 대해서만 원가의 감계적 내용을 굳이 뒤바꾸어 남녀상열로 만들어 놓고 있는지 도저히 설명되지 않는다. 즉, 소악부 창작의 근본취지에 부합되지 않는다.”라고 하였지만,⁴⁰⁾ 앞서의 자료들을 총체적으로 검토한 결과 이러한 의문은 충분히 해소될 수 있을 것이다.

앞의 논의에서 우리는 또 하나의 의문에 대한 해답도 모색하였다. 그것은 과연 지금까지 밝혀진 관련 자료들을 근거로 고려가요 「안동자청」이 민요적 성격을 띤 노래였을까, 만일 그렇다면 그 민요적 성격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포함하는 것일까 하는 의문이었다. 그리고 논의의 결과 민사평이 악부시를 창작할 당시 이미 고려가요 「안동자청」은 궁정이나 상층 관료사회에 널리 유행하던 노래였다는 점과 “絲之紅綠青白 反覆比之”라는 전술이 반드시 「안동자청」의 민요적 형식을 시사하는 것이 아님을 확인하였다. 그리고 『세종실록』의 기사에서 “아녀자가 지은 것”이라는 전술은 고려가요 「안동자청」의 시적 주인공이 ‘아녀자’로 설정되어 있었기 때문이지 관련 자료에 작가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가 담

40) 朴惠淑, *op. cit.*, 51면.

거 있었기 때문이 아닐 것으로 추정하였다. 따라서 지금까지 밝혀진 자료에 근거할 때 고려가요 「안동자청」이 민요적 성격을 떤다는 주장에는 결정적인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음을 알 수 있었다.

한편, 「안동자청」이라는 노래의 제목도 고려가요 「안동자청」이 민요적 성격을 보장해 주기보다는 차리리 관료 문학적 성격을 시사하는 것으로 추정해 보았다. 이와 관련하여 「청구풍아」의 다음 주석은 주목할 만한 자료이다.

- ① 이 시(「백사음」, 필자 주)는 쫓겨난 부인으로써 쫓겨난 신하를 비유한 것으로, 두보(杜甫)의 「백사행(白絲行)」과는 조금 다르다.⁴¹⁾

민사평의 「소악부」의 소재가 된 고려가요 「안동자청」은 궁정이나 상층 관료 사회에 널리 유행한 우리말 노래였다. 그렇다면 왜 이 노래가 상층 관료 사회에서 널리 유행하였을까. 이 의문의 해결이 곧 고려가요 「안동자청」의 문학적 성격을 규명하는 데 있어 핵심적인 관건이 된다고 할 수 있다. ①은 바로 이런 의문에 대한 해답을 분명히 보여 주고 있다. 즉, 고려가요 「안동자청」은 그 자체로는 비록 한 남자만을 섬겼음에도 불구하고 오해를 받아 쫓겨나게 된 한 여자의 처지를 형상화하였지만 그것은 관직에서 쫓겨난 관료의 이야기를 비유적으로 드러낸 것으로 이해되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자신의 진실이 오로지 군왕을 섬기는 데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근거없는 소문에 의해 관직에서 쫓겨나게 된 관료가 자신의 억울한 심정을 표현하고 오해를 살 만한 일도 하지 않음으로써 자신의 진실을 군왕에게 전달하고 싶어하는 간절한 소망을 드러낸 노래로 받아들여졌음을 알 수 있다. 그만 큼 관료로서의 처신이 어려웠음을 비유적으로 드러낸 것으로 볼 수 있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고려가요 「안동자청」은 「정과정(鄭瓜亭)」과 일맥 상통하는 면을 지니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청구풍아」의 주석에서 또 하나 주목할 점은 백원항의 「백사음」과 두보의 「백사행(白絲行)」을 비교하여 “조금 다르다.”고 평가한 점이다. 진술 자체만을 두고 볼 때, 백원항의 「백사음」은 고려가요 「안동자청」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고 두보의 「백사행」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것일 수 있는 가능성을 시사한다.

41) “此詩以遺婦比逐臣 與子美白絲行 憲稍異,”『青丘風雅』卷二.

그러나 앞서의 논의에서 확인하였듯이 백원항의 「백사음」은 이유원의 악부시 「안동자청」과 거의 동일한 시적 상황을 보여 주고 있다. 뿐만 아니라 '자청'이라는 제목 자체도 「백사음」에 등장하는 '춤옷'과도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백원항의 「백사음」이 고려가요 「안동자청」과 직접적인 연관성을 갖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 진술은 어떻게 이해할 수 있는 것일까.

사실 백원항의 「백사음」과 두보의 「백사행」은 기본적으로 몇 가지 공통점을 지니고 있다. 다음은 두보의 「백사행」이다.

② 실을 모름지기 길게 뽑고 모름지기 하얗게는 아니할 것이다.

월(越)나라의 비단과 촉(蜀)나라의 비단을 계화(桂花) 문양 새긴 자로 재었도다.

상아상(象牙床)에서 옥(玉) 같은 손에 붉은 빛이 어지러운니

온갖 풀과 온갖 꽃에 어우러져 푸른 빛이 움직이는도다

하얀 바탕이 시절(時節)을 따라 물蠹을 이미 슬퍼하였나니

우는 배틀에 베어 내리니 빛이 서로 비추는도다.

고운 사람에 세심한 뜻으로 주름진 곳을 다려 평평하게 하여

마르고 호아 바늘실 자취 없게 하였도다.

봄날에 입고 군왕을 위하여 춤추니

나비 날아 오는 듯하며 꾀꼬리 말하는 낫하도다.

떨어지는 버들개지와 떠다니는 실이 또 뜻이 있는 듯하니

바람을 따르며 해를 비추어 가볍게 드는 것이 미령하도다.

향긋한 땀과 맑은 티끌이 낮빛을 더럽힌다면

새것을 열어 내고 낡은 것을 모아 어디에 두겠는가?

그대는 재주 많은 사람의 쓰임이 어려움을 보지 아니하는가?

버릴까 두려워 나그네 됨을 참는도다.⁴²⁾

이 시는 고운 사람[美人]이 비단에 온갖 무늬를 수놓아 춤옷[舞衣]을 만들어 군왕 앞에서 춤을 추지만 그 옷이 향기로운 땀과 맑은 티끌에 의해서라도 혹 더

42) “緹絲須長不須白 越羅蜀錦金粟尺 象床玉手亂殷紅 萬草千花動凝碧 已悲素質隨時染
裂下鳴機色相射 美人細意熨帖平 裁縫減蹙針線迹 春天衣著爲君舞 嫣嬈飛來黃鸝語
落絮游絲亦有情 隨風照日宜輕舉 香汗清塵污顏色 開新合故置何許 君不見才士引難
恐棄損忍羈旅。” 원문은 소재 문헌에 따라 한 두 글자 다르다. 인용한 원문은 『分類杜
工部詩譏解』 卷之二十五에서 인용하였고 번역은 언해를 현대어로 바꾸어 인용하였다.

협혀지게 되면 군왕으로 외면을 당하게 된다는 비유를 통하여 재주 있는 신하가 군왕을 위하여 자신의 재주를 발휘하더라도 자칫하면 군왕으로부터 벼름을 받게 되므로 그렇게 벼름을 받지 않기 위해서는 관직에 나아갔을 때나 관직에서 물러나 있을 때 처신을 신중하게 하여야 한다는 뜻을 말하고 있다. 두보가 자신의 처지를 비유적으로 표현한 것으로 볼 수 있고 관직에 나아가는 사람들에게 자신들의 처신을 신중하게 하라고 권고한 것으로도 볼 수 있는데,⁴³⁾ 이 시를 백원항의 「백사음」과 비교해 보면 몇 가지 유사점을 발견할 수 있다. 알록달록한 비단의 색깔과 하얀 실이 등장한다는 점, 신하를 비유하는 주인공[美人]이 춤옷을 만들고 있다는 점, 쫓겨난 신하의 처지와 심정을 비유적으로 드러내고 있다는 점, 16구로 이루어졌다는 점 등의 유사점을 발견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공통점 때문에 「백사음」이 「백사행」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아 지어진 것으로 볼 수는 없을 것이다. 두 작품은 공통점보다는 차이점을 더 많이 갖고 있고 이러한 차이점들은 영향 관계로 이해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우선, 「백사행」에는 군신(君臣) 관계가 표면화되어 있음에 비하여 「백사행」에는 군신(君臣)의 관계가 표면화되어 있지 않다. 또 제1행~제8행은 군왕을 위하여 춤을 추기 위해 춤옷을 만드는 내용인데, 여기서의 '하얀실'은 그 자체로 「백사음」의 그 것과 다른 것이다. 하얀실은 춤옷을 만드는 데 필요한 것이지만 그렇게 만든 춤옷이 여러 가지 무늬와 색깔의 비단과 어울려 좋은 옷이 되기 위하여는 그것으로 꿰매고 혼 흔적이 없어야 하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하얀실은 "모름지기 길게 뽑고 모름지기 하얗게는 아니할 것"이다. 따라서 「백사행」의 '하얀실'의 비유는 「백사음」의 그들과 상당히 다른 특성을 갖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백사음」에서는 하얀실 자체가 아녀자를 비유한 것이고 하얀실이 여러 색깔로 물드는 현상 자체를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 「백사음」에는 '미인(美人)'이 만드는

43) 이 시는 천보(天寶) 11년(752)~12년(753) 사이 두보가 장안(長安)에 머무를 때 지은 것으로 추정되나 정확한 창작 연도는 알려져 있지 않다. 두희정(竇懷貞)을 풍자하여 지은 것이라는 설이 있으나 두희정이 713년에 죽었고 이 때 두보의 나이 겨우 두 살이었으므로 믿을 수 없다고도 한다. 다만 이 시는 인정의 변화에 따라 번화(繁華)하던 것이 갑자기 영락(零落)하는 것을 보여 춤으로써 관직에 나아가고 물러나는 일을 신중하게 처할 것을 다짐하거나 권고한 작품으로 해석될 수 있을 것이다.

것이 ‘공자의(公子衣)’ 곧 남편의 옷으로 설정되어 있음에 비하여 「백사행」에는 ‘미인 자신의 춤옷’으로 설정되어 있으며, 「백사음」에는 주인공이 바느질을 하지 못하고 쫓겨나는 상황이 설정되어 있음에 비하여 「백사행」에는 춤옷을 만들어 군왕을 위하여 춤을 추다가 쫓겨나는 상황이 설정되어 있다. 따라서 「백사음」과 「백사행」은 구체적인 시적 상황의 설정에 있어 서로 다른 면모를 보여 준다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청구풍아』의 편찬자가 “두보의 「백사행」과는 조금 다르다.”라고 한 것은 「백사음」이 「백사행」으로부터 직접적인 영향을 받았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백사음」이 ‘하얀실’ 곧 ‘백사(白絲)’에 그 초점이 놓인 작품이기 때문에 두보의 「백사음」과 비교될 수 있고 그렇게 비교한 결과 두 작품이 서로 다르다는 것을 지적한 것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진술 자체가 「백사음」이 「백사행」과의 직접적인 영향 관계를 말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수 있다.

민사평의 「소악부」 제5장과 백원항의 「백사음」의 존재는 한편으로는 ‘별곡’ 곧 궁정이나 상층 관료 사회의 연회 공간에서 유행한 우리말 노래 가운데 하나인 「안동자정」이 문인 관료들에 의해 널리 수용되었음을 말해 주며, 특히 「백사음」의 존재는 이 노래가 문인 관료들 자신의 처지와 정서를 효과적으로 담을 수 있는 노래로 인식되기도 하였음을 말해 주는 것이다.

한편, 백원항이 「백사음」을 지은 것은 1311년에서 1321년 무렵이었을 것으로 짐작된다. 이 시기에 그는 자첨사사(資贍司使) 전영보(全英甫)가 국가 재물을 훔친 혐의를 잡고 그 일을 추궁하다 함께 연루된 사복령사(司僕令史)를 문초하다 죽인 일로 인하여 영홍도(靈興島)로 귀양을 가게 된다.⁴⁴⁾ 귀양에서 바로 풀려나긴 하였으나 그로부터 1321년 밀직사로 임명되기까지 이렇다할 관직에 오르지는 못하였다. 그런 와중에 유첨신과 오잠이 충숙왕(忠肅王)을 중상하였다는 소문 때문에 대질 심문을 받았으며,⁴⁵⁾ 충선왕의 병환 운동에 가담한 일로 권한 공, 채홍철 등으로부터 도당(都堂)을 모독하고 농락하였다는 비방을 받기도 하였다.⁴⁶⁾ 백원항이 「백사음」을 지은 것은 바로 이러한 자신의 처지와 밀접한 관

44) 『高麗史』 卷第124, 列傳 第37 全英甫.

45) 『高麗史』 卷第125, 列傳 第38 柳清臣.

46) 『高麗史』 卷第125, 列傳 第38 權漢公.

련을 갖는 것으로 보인다. 비록 「백사음」 자체에는 군신(君臣) 관계가 직접적으로 드러나 있지는 않으나, 군왕의 미움을 사기도 하고 관직에서 쫓겨나 유배를 가기도 한 관료로서의 억울한 심정이 함축되어 있다고 할 수 있는 것이다.

이는 정서의 「정과정」이 그 자체로는 사랑하는 사람으로부터 벼름을 받은 한 여인이 자신의 억울한 심정을 토로하고 그 사랑의 관계가 회복되기를 갈망하는 노래로 해석될 수 있는 것과 동일한 논리로 고려가요 「안동자청」을 이해할 수 있게 한다. 사실 「정과정」은 작가에 대한 정보가 주어져 있지 않았다면 그 자체로는 군왕으로부터 벼름받은 관료의 노래로 파악되지 않았을 수도 있다. 이 노래를 「충신연주(忠臣戀主)」의 범주에归属시키는 것은 전적으로 이 노래의 작자가 「정서」이기 때문이지, 노래 자체에 군신(君臣)의 관계가 표현되어 있기 때문은 아닌 것이다. 앞서의 논의를 종합해 볼 때 고려가요 「안동자청」 또한 그 자체로는 평생 한 남자를 섬겼음에도 불구하고 시댁으로부터 쫓겨나는 아녀자의 처지와 비애, 그리고 다시 시댁으로 복귀하여 남편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싶은 소망이 복합적으로 담겨 있는 노래이지만 이 노래가 문인 관료들에 의해 수용될 때는 「충신연주(忠臣戀主)」의 노래로 수용될 수 있는 노래였다고 할 수 있다.

군신의 관계가 부부의 관계 또는 남녀의 관계와 유비적으로 이해될 수 있다는 점에서 보면 「정과정」이나 「안동자청」은 「남녀상열」의 노래라고 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것은 적어도 「음사」에 가까운 「남녀상열」의 노래라든가 「숫총각 숫처녀의 사랑 노래」라고 볼 수는 없을 것이다. 이들 노래들은 어디까지나 시적 주인공 자신의 결백함과 억울함을 비유적으로 호소하고 있을 따름이다.⁴⁷⁾

47) 朴惠淑, *op. cit.*, 39면에서는 “남녀상열을 노래했다고 해서 그 내용을 모두 퇴폐적으로 만 볼 것은 아니다 (중략) 남녀의 자유분방한 연애감정이나 행락을 긍정한 것으로 평가 할 수 있다.”라고 하여 「음사에 가까운 노래」로는 보지 않고 있다. 앞서의 자료에 근거할 때 이제현이나 민사평이 “자유분방한 연애감정이나 행락”을 긍정적으로 보았다는 점은 인정되지만 「안동자청」이란 노래 자체가 그런 내용을 표현한 노래라고 할 수는 없을 것이다. 만일 그렇게 해석된다면 그 또한 「음사」의 범주에 들 수밖에 없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렇다면 「고려사」의 편찬에 참여한 관료들이나 관습도감의 관료들에 의해 이 노래가 굳이 「정절자수」의 노래로 재해석되지는 않았을 것이다.

7. 결론

고려가요 「안동자청」의 문학적 성격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 하나는 주제적 성격에 관한 것이요, 다른 하나는 장르적 성격에 관한 것이다. 지금까지의 연구에서는 주로 주제적 성격 여하에 집중되었고, 그 결과 '남녀상열'의 노래라는 주장과 '정절자수'라는 주장이 대립되어 왔으며 특히 전자의 주장이 최근에는 일반적인 견해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듯하다. 그리고 장르적 성격에 대하여는 '민요적 성격'을 떤다는 데 모든 연구자들이 암묵적으로 동의하여 왔다.

이 글은 지금까지 알려진 고려가요 「안동자청」의 관련 기록을 총체적으로 재검토하면서 이 두 가지 문제를 구체적으로 논의하였다. 그 결과 다음과 같은 잠정적인 결론을 이끌어낼 수 있었다.

첫째, 고려가요 「안동자청」은 남편을 포함한 시댁으로부터 쫓겨난 여인의 억울한 처지와 상황과 그러한 상황이 전적으로 오해에서 빚어진 것임을 역설함으로써 다시 시댁으로 복귀하고 싶어하는 여인의 간절한 소망을 드러낸 노래였다. 따라서 「안동자청」의 주제를 '정절자수(貞節自守)'로 파악한 「고려사」의 기록이나 「세종실록」의 기사는 노래의 진상을 왜곡한 것이라 할 수 없는 것이다.

둘째, 고려가요 「안동자청」은 아무리 빨라도 1308년 이후에, 아무리 늦어도 1320년 이전에 궁정 노래로 유행한 노래로서, 쫓겨난 신하가 자신의 진실한 충정과 억울한 심정을 비유적으로 표현함으로써 다시 관직을 회복하거나 원래의 군신 관계를 회복하고 싶은 소망을 드러내는 노래로 수용되었다. 이런 점에서 「안동자청」은 '충신연주'의 노래로 파악되는 정서의 「정과정」과 일맥 상통하는 노래로서 그와 유사한 기능을 하였던 것이라 할 수 있다. 다만 민사평의 「소악부」 제5장은 부부 관계 또는 남녀 관계를 전제하고 읽을 때에는 그 자체로는 '남녀상열'의 노래로 해석될 여지를 갖고 있다. 그러나 이 때에도 '숫총각 숫처녀의 사랑 노래' 또는 '음사(淫辭)에 가까운 남녀상열'의 노래로 해석될 수는 없는 것이다.

셋째, 지금까지 밝혀진 관련 기록에 근거하여서는 고려가요 「안동자청」이 민요라거나 민요적 성격을 띤 노래라고 단정할 수 없다.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안동자청」은 그 자체로는 작중 화자인 여주인공의 억울한 처지와 심정을 표현하고 있는 노래이지만, 상충 관료나 문인들에 의해 자신들의 처지를 알리는 ‘하의상달(下意上達)’의 노래로도 수용되었다는 것이다.⁴⁸⁾ 비록 노래의 ‘취의’는 민요에 바탕을 둔 것이라 하더라도 문인 관료들에 의해 재창작되었을 가능성은 「안동자청」이란 제목 자체에서도 확인되고 있다. 궁정 또는 상충 관료들의 노래로서의 「안동자청」은 「정과정」과 같은 ‘충신연주’의 노래에 귀속시킬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결론은 잠정적이긴 하지만 지금까지의 고려가요 연구의 관점과 태도에 대한 진지한 반성이 필요하다는 것을 암시한다. 고려가요 「안동자청」의 관련 기록들은 잠재적으로든 표면적으로든 남녀의 관계가 설정되어 있다는 사실과, 그 노래가 ‘남녀간의 사랑’을 표현한 노래였다면 예정가요로만 수용되었다는 주장이나 원래는 예정민요였던 것이 궁정 노래로 수용되었다는 주장이 반드시 논리적인 연관 관계를 갖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보여 주고 있기 때문이다.

48) 이 때의 ‘하의(下意)’는 곧 관료들 자신의 처지와 입장을 가리키는 것이다.